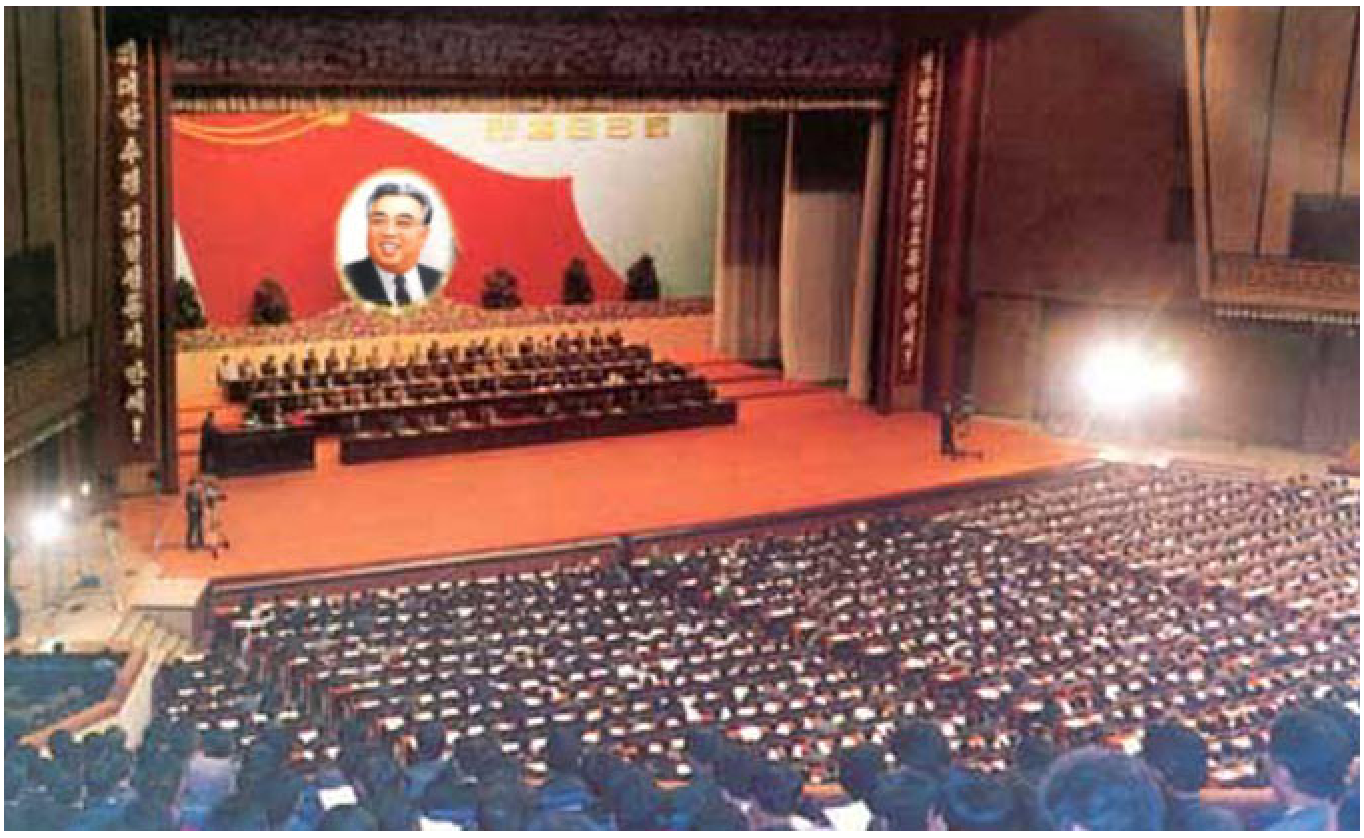
백두산
2호 - 주체91(2002)년 4월 16일 백두산 편집부

김정일장군님은
통일혁명의 영도자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김일성주석님 탄생 90돐기념 중앙보고대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기념 중앙보고대회가 14일 평양체육관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였다.

대회에는 김영남, 조명록, 홍성남을 비롯한 당과 국가지도간부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주재 외교대표들과 외국손님들, 해외동포들이 또한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김영남위원장이 기념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김일성**주석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조국광복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80고령에 이르는 기간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일신의 모든것을 바치시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인류력사발전의 새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시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선군혁명의 시원을 열어 놓으시고 강력한 혁명무력을 건설하시여 조선인민의 반제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주체형의 혁명적당과 국가정권을 건설하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주석이시야말로 민족적독립과 번영의 상징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다. 그이의 어버이사랑은 남녘의 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만리이역에 사는 모든 해외동포들에게도 뜨겁게 미치여 그들이 참다운 애국애족의 길, 조국통일의 길에 힘 있게 떨쳐 나서게 하였다. 주석께서 인류의 광명한 미래를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불면불휴의 로고와 따뜻한 은정을 기울이신 그 숭고한 풍모는 오늘도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여 세계원로수령에 대한 다함없는 숭배심과 흠모심을 뜨겁게 자아 내고 있다.

주석께서 조국과 민족, 시대앞에 쌓아올리신 업적중에서 특별히 귀중하고 심원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공적은 혁명위업계승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시여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결정적담보를 마련하신것이다.

주석의 혁명위업은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으며 수령님의 혁명력사는 조선로동당의 위업과 더불어 변함없이 줄기차게 흐르고 있다. **김정일**령도자께서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계시여 주체혁명위업은 종국적완성에로 승승장구할것이며 **김일성**주석은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영생하실것이다.

보고자는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미국의 호전세력들이 반공화국압살기도를 보다 로골화하면서 조선반도를 새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 넣으려고 극히 무모하게 책동하고 있는 엄중한 정세에 대처하여 높은 혁명적경각성과 고도의 전투동원태세를 견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만약 적들이 감히 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자비한 보복타격으로 침략의 무리들을 격멸소탕하고야 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재일본조선인대표단 단장인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서만술의장이 연설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14일

김일성주석님의 령도업적을 대를 이어 빛내여 나가자!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조선인민과 외국의 벗들은 그이의 위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억하고 있다.

김일성주석님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였으며 위대한 철학가,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군사전략가, 위대한 령도예술가이시였다.

주석님께서는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영원한 광명을 안겨 주시였다.

그이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주체15(1926)년 10월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강령을 작성하신 때로부터 주체83(1994)년 7월 6일까지 집필발표하신 수많은 로작들가운데서 지금까지 출판된 로작들은 3,000여건에 달하고 있다. 로작들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절절한 념원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108개 나라에서 63개의 민족어로 출판되였다.

오늘 세계인민들은 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따라 배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 수많은 나라에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이 나와 주체사상을 연구보급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

그이께서는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시며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시였다.

근 반세기동안 그이께서는 8,000여차에 걸쳐 전국의 1만 8,000여개의 단위를 현지지도하시면서 장장 55만여㎞의 로정을 이어 가시였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정력적으로 활동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광복후부터 지금까지 50여차에 걸쳐 연 80여개 나라를 공식 및 비공식 방문하시였으며 국가수반, 당수반, 정부수반을 비롯하여 연 7만여명의 외국손님들을 접견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혁명위업과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원수칭호와 공화국영웅칭호(3차), 로력영웅칭호를 받으시였다.

그리고 세계 70여개 나라와 국제기구들로부터 최고훈장과 메달, 30여개 도시의 명예시민칭호, 외국의 이름 있는 20여개 대학들에서 명예교수와 명예박사칭호를 받으시였다. 그리고 170여개 나라 당 및 국가, 정부수반들, 진보적인민들로부터 16만 5,000여점의 선물을 받으시였다.

주석님에 대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경모의 정이 발현되여 중국, 몽골에 그이의 동상이 건립되고 세계적으로 ≪국제**김일성**상≫이 제정수여되고 있으며 100여개 나라 480여개의 거리, 기관, 단체들에 주석님의 존함이 모셔 졌다.

김일성주석님의 혁명생애는 20세기와 더불어 흘러 온 절세의 위인의 거룩한 한생이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14일

2 태양절 90돐 특집 2
- 주체의 태양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 영원하리
- ≪민중행열차≫를 타시고
- 백두산을 우러른다 2

5 종합
-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장병들의 례식
-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 각지에 건립
- 한민전 평양대표부 태양절맞이 기자회견
-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성대히 개막
- 우리의 ≪인권문제≫걸고 든 미국을 규탄
- 북남 각계 단체 대표들의 금강산접촉 진행, 공동성명 발표

7 노작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어 나가자(2)

9 세기와 더불어
- 6장 4절 합작은 불가능한가? (2)

11 한국민족민주전선
- **김일성**주석은 오늘도 집무보신다 (1)

13 투쟁보도
- 통일연대, 6차 범국민행동의 날
- 테러방지법 저지 단식농성
- 수원시민 자존심으로 미군기지 막자
- 네티즌, 2차 불매운동

15 운동강좌
-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열 가지 논제(1)

주체의 태양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 영원하리

올해 4월15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주년이다.

20세기가 낳은 만고절세의 위인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민족의 태양으로, 인류의 태양으로 높이 솟아오르신 4월15일 태양절을 우리 7천만 겨레는 세계 진보적 인류와 함께 가장 뜻깊게 기념하고 있다.

인류공동의 대명절인 태양절을 맞는 온 겨레의 가슴가슴은 위대한 주석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끝없이 설레이고 있으며 그분께서 민족과 인류 앞에 쌓아올리신 영구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 보며 영생을 기원하고 있다.

김일성주석님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우리 민족과 세계 진보적 인류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주체의 태양이시다.

주석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망국의 암흑 속에서 재생의 빛을 찾아 헤매이고 세계 피압박민중들이 자주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변혁의 길을 모색하고 있을 때 사람중심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그들이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올바른 투쟁의 길을 밝혀주시었다.

주체사상은 변혁실천에서 확증된 불패의 진리성과 활력으로 하여 오늘 우리 민중뿐아니라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 진보적 민중들의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추동력으로, 시대의 공인된 지도사상으로 찬란히 빛을 뿌리고 있다.

주석님께서 천리혜안의 예지와 비범한 사상이론활동으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자주시대의 불멸의 기치이며 완성된 변혁이론이다. 현시대뿐 아니라 미래에 살게 될 사람들의 사상정신적 풍모도, 자주화된 새 세계의 면모도 완벽하게 밝혀주신 주석님의 주체사상이야말로 인류지성과 예지의 최고정화이다.

주석님께서는 시대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어 20세기를 억압받고 천대받던 나라와 민중들이 세기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역사적인 새 시대, 자주의 세계로 되게 해주시었다.

20세기는 **김일성**주석님의 사상, 이론, 활동으로 개척되고 발전되어 온 자주의 새 시대이며 주석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와 열렬한 칭송의 세기였다. 20세기 역사발전의 주류를 이루는 운동들은 실로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자주시대를 개척하시고 민중의 자주위업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김일성**주석님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김일성**민족의 넋으로, 인류자주위업의 횃불로 활력을 발휘할 것이며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주체사상의 광휘로운 빛발과 더불어 인류의 심장 속에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실 것이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은 민중의 자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대성인이시며 혁명의 태양이시다.

주석님께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어 조국광복을 이룩하시었으며 광복이후 이북에서 새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과 여러 단계의 사회변혁과 사회주의건설을 현명하게 영도하시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었다. 주석님께서는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80성상 순간의 휴식도 없이 오로지 민중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시었으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운명을 지키고 빛내어주신 절세의 애국자, 인간사랑의 태양이시다.

주석님께서는 뜨거운 민족애와 사랑으로 온 겨레를 통일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조국통일의 구성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다. 주석님은 하늘과 같은 덕망으로 정견과 신앙, 과거지사를 개의치 않으시고 인간적 의리와 민족적 양심을 지닌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조국통일의 한길로 이끌어주시었다. 하기에 한평생 반공의 길을 걸은 우익정객들도 연공애국의 인생전환을 하였으며 곡절많은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들도 통일애국의 길에 나서게 된 것이다.

오늘 7천만 겨레는 한결같이 주석님을 조국통일의 구성, 민족의 어버이로 끝없이 경모하면서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실 한결같은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

김일성주석님은 자주시대의 위대한 수령으로서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밑에 세계 진보적 민중들을 자주위업에로 인도하시어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 인류의 태양이시다.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등 세계 6대주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태양절 기념집회와 노작연구토론회, 사진전, 회고모임 등을 조직하여 태양절을 뜻깊게 기념하고 있으며 권위있는 신문, 통신, 방송들이 태양절을 계기로 특간호, 특집방송을 조직하여 주석님을 ≪20세기가 낳은 걸출한 사상이론가≫,≪자주시대를 개척하신 위대한 태양≫,≪세계혁명의 위대한 수령≫,≪인간사랑의 화신≫,≪창조와 건설의 영재≫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김일성주석님은 비록 서거하시었으나 태양의 존함과 거룩한 영상, 인류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어제도 오늘도 7천만 겨레와 인류의 심장 속에 영생하고 계신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은 사상과 업적의 계승으로 영생하며 빛난다.

어버이 **김일성**주석님의 영생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만 간직된 영생이 아니다.

위대한 **김정일**영수님께서는 우리 7천만 겨레와 세계 진보적 인류의 마음을 담아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금수산기념궁전에 높이 모시었다. 그리하여 주석님께서는 생존시처럼 많은 겨레와 해외인사들을 만나주시며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신다. 영수님께서는 우리는 수령님을 추모하고 은덕을 잊지 않고 기억해 두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모두가 수령님의 사상의 지대로 숨쉬고 업적을 이어 나가야 한다, 수령님의 영생은 사상과 업적의 계승에 있다고 뜨겁게 가르쳐주시었다.

영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라는 신념의 구호를 제시하시고 주석님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받들어 통일되고 번영하는 강성대국의 길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 계신다.

영수님께서는 주체연호와 태양절을 제정해 주시었고 어버이주석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그분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을 명기한 사회주의헌법을 채택케 하시었다.

영수님께서는 주체의 태양아래 열린 자주통일의 길로 온 겨레를 이끌고 계신다. 민족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 어버이주석님의 통일친필비를 세우도록 하시고 주석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을 조국통일의 3대헌장으로 정립하시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대헌장인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내놓으셨다.

주석님의 통일유훈을 기어이 실현하시려는 것은 영수님의 철의 의지이다.

문익환목사를 뜨겁게 포옹해 주신 주석님의 동포애의 그 정으로 남녘동포들이 다 온 것처럼 반갑다고 박용길장로의 손도 따뜻이 잡아주시고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을 만나시어 통일성업에 애국애족의 성의를 바칠 수 있도록 대해같은 은정을 베풀어주신 **김정일**영수님이시다. 역사적인 평양상봉과 조국통일의 이정표인 6.15공동선언도 영수님의 대용단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해외교포들 속에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겨레의 곁을 떠나지 않고 후대들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계신다. 주석의 사상과 업적, 미덕을 그대로 이어받은 **김정일**영수님 계시어 민족의 앞날은 창창하다≫고 격정을 터친 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충정의 화신이시며 숭고한 도덕 의리의 체현자이신 **김정일**영수님 계시어 어버이 **김일성**주석님은 사상과 업적, 덕망으로 영생하신다.

태양이 영원하듯 절세의 위인 **김일성**주석님은 영원히 우리 7천만 겨레와 세계 진보적 인류와 함께 계신다.

구국전선 사설
주체 91, 4월 15일

≪민중행열차≫를 타시고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탄생하신 태양절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들은 **김일성**주석님의 업적을 칭송할 때 제일먼저 ≪민중행열차≫를 떠올리게 된다.

≪민중행열차≫라고 할 때 그것은 위대한 주석님께서 민중을 찾아 쉼없이 다니신 현지지도를 비유해서 표현한 것인 줄로 안다.

일찍이 ≪이민위천≫,≪민거백승≫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항일투쟁시기부터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민중을 위해 한평생을 고스란히 바치시었다.

경애하는 주석님께서 광복직후부터 위대한 생애를 마치시는 그날까지 연 8,000여회에 걸쳐 1만 8천여개의 단위를 현지지도 하셨는데 그 거리는 무려 55만여km(137만 5천여리)나 된다고 한다.

그분께서는 그 나날에 명절날, 휴일도 따로 없이 옹근 7년세월과 맞먹는 2천 5백30여일을 현지지도의 길에 바치셨다 한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곳곳을 찾아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형편도 알아보시고 농민들의 농사일도 의논해 주셨다. 학교와 유치원, 탁아소, 병원, 상점들도 돌아보셨으며 주민들의 생활형편과 간장, 된장맛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셨다.

민중을 찾아 달리는 열차칸에서 끼니를 건늬시거나 밤을 새우기도 하시며 일하신 주석님이시었다. 열차칸은 곧 그분의 숙소이고 집무실이었다. 주석님께서 타신 ≪민중행열차≫가 가는 곳마다에서 이북민중의 행복이 꽃펴나고 새로운 기적이 창조되었다.

오늘도 ≪민중행열차≫는 멈춰섬이 없이 계속 달리고 있다.

평원군 삼봉협동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 (1986.11)

바로 그 열차에 **김일성**주석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타시고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다.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한평생을 민족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 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높은 뜻을 그대로 체현하신 장군님께서는 주석님처럼 민중행열차를 타시고 헌신의 서사시를 수놓아 가고 계신다.

민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장군님께서 계시고 장군님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민중이 있다. 민중을 찾아 때로는 험한 벼랑길과 눈길, 진펄길을 걸어오신 장군님의 노고는 정녕 헤아릴 수 없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광복 후부터 지난해 주체90(2001)년까지 5,781일에 걸쳐 무려 42만 3,307km(105만 8,260여리)에 달하는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걸으시었다 한다. 그리고 이 나날에 무려 1만 1,326개의 단위를 찾으시었다고 한다.

장군님께서 지난해 명절과 일요일을 현지지도로 바치신 것만 보아도 다음과 같다.

- 2001년 1월1일(설명절)
조선인민군 제932군부대 방문
- 1월21일(일요일)
평북 신의주시내 경공업공장 현지지도
- 1월24일(음력설)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 관람
- 4월15일(태양절)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2629군부대 방문
- 4월25일(건군절)
조선인민군 제671군부대 방문
- 5월13일(일요일)
황해남도 과일군을 현지지도
조선인민군 제243군부대 관하 포중대시찰
- 5월20일(일요일)
조선인민군 제256군부대 시찰
- 8월19일(일요일)
나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
조선인민군 제696군부대 시찰
- 9월23일(일요일)
황해남도 과일군을 현지지도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 메기공장 시찰
- 11월4일(일요일)
함경북도 무산광산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
- 12월24일
조선인민군 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 관람
- 12월27일(헌법절)
조선인민군 제646군부대 방문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이름난 정치가들도 많지만 **김정일**장군님처럼 명절, 휴일날까지 현지지도의 길에서 보내시고 민중의 행복을 위하여 불같은 정력을 현지지도의 길에 쏟아부으시는 그런 영도자는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진눈깨비가 사정없이 내릴 때 험한 길, 칼벼랑을 톺아 천리전연의 최전방초소에 오르기도 하시고 세찬 파도를 헤가르시며 초도와 알섬방어대를 시찰하기도 하시었다. 또 대한의 혹한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북방의 여러 공장, 기업소, 발전소들을 찾기도 하시었다.

그 나날에 그분께서는 주먹밥으로 끼니를 에우셨고 쪽잠으로 한순간의 휴식을 대신하시었다.

주체87(1998)년 어느날에 있은 일이라 한다. 칼날같이 살을 에이는 날씨에 자강땅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강도 사람들이 성의껏 꾸려놓은 숙소를 마다하시고 열차안에서 그것도 강냉이가루빵과 남새장국으로 끼니를 에우시면서 현지지도의 나날들을 보내시었다고 한다.

장군님께서는 지난해 7월말 러시아연방을 방문하시기 위해 특별열차를 타고 가시면서도 식사를 건늬시면서 긴장한 집무를 보시었다. 식사를 건늬시는 장군님의 건강이 념려되어 말씀드리는 수행원에게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아무리 바빠도 식사를 건늬거나 설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 못합니다. 식사를 간단히 하는 것 뿐아니라 딴딴한 침대위에서 자는 습관도 고치지 못하겠습니다. 푹신한 침대에 누우면 허리가 아프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야전식이 제일입니다. 야전식은 나의 몸에 완전히 배였습니다.≫ 이북민중은 민중을 위해 그토록 노고를 바치시는 **김정일**장군님의 이런 헌신을 ≪축원≫이라는 노래에 담아 칭송하고 있다.

1. 낮이나 밤이나 인민의 행복위해
그 언제나 마음을 많이도 써오신 분
아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인민은 바랍니다 기쁨 속에 계시기를

2. 길없는 초행길 남먼저 헤치시며
바람부는 험한 길 많이도 걸으신 분
아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인민은 바랍니다 좋은 길만 가시기를

3. 높은산 낮아져 바다가 된다 해도
인민들은 한마음 끝까지 따르리
아 우리의 친애하는 김정일동지
인민은 바랍니다 행복 속에 계시기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민중의 행복과 조국의 번영을 위해 걷고 또 걸으시는 그분의 노고는 이렇듯 헤아릴 수 없고 거기에 바쳐지는 그분의 심혈은 한없이 뜨거운 것이다.

장군님의 ≪민중행열차≫는 민중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과 절대적인 믿음을 새기며 달리는 열차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는 그 자체가 민중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 기초한 영도방식이다.

민중사랑과 숭배를 천품으로 지닌 영도자만이 민중을 위한 정력적인 영도의 길을 걸을 수 있고 민중의 끝없는 존경과 신뢰속에서 변혁운동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갈 수 있다.

역사에는 ≪덕치≫를 표방하고 ≪선정≫을 베푼다고 하는 정치가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인류정치사는 장군님처럼 열화와 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민중을 안아준 민중의 어버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

장군님의 사랑은 천차만별의 사람들을 차별없이 안아주는 믿음이며 민중이 바란다면 돌위에도 꽃을 피우시는 헌신성이다. 민중에게 보다 문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온갖 사색과 노고를 다 바쳐오신 분이 바로 장군님이시다.

대홍단군종합농장을 찾으시었을 때에는 제대군인들의 가정에 들리시어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기념촬영도 해주시었다.

함경북도 경성군 상온포농장을 찾으시었을 때에는 평범한 농장원의 집에 들리시어 웃방, 아랫방, 부엌까지 다 돌아보시고 온 가족과 함께 기념촬영도 해주시었으며 강동군의 한 공장을 찾으시었을 때에는 한 기술자의 집에 들리시어 살림형편도 알아보시고 귀중한 사랑의 선물도 보내주신 장군님이시다.

위대한 사랑은 위대한 힘을 낳는다.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 수 없는 이북민중의 일심단결, 불패의 국력, 만민이 부러워하는 이북민중의 행복한 생활은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고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그분의 높은 뜻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민중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오늘도 장군님께서 타신 ≪민중행열차≫는 끊임없이 달리고 있다.

≪민중행열차≫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현지지도의 길은 민중사랑의 서사시를 엮으며 영원히 달려갈 것이다.

박소영 - 구국전선
주체91, 4월 15일

주석께서 찾으신 단위수 2만 600여개, 연장거리 57만 8,000여키로메터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조국광복직후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인민군부대들을 비롯하여 조국땅 방방곡곡을 찾으시였다.

그 단위수는 2만 600여개이고 날자수는 8, 650여일에 달한다.

이 나날 그이께서 걷고 걸으신 현지지도로정의 총 연장거리는 무려 57만 8,000여키로메터로서 지구를 14바퀴반이나 돈 것과 맞먹는 거리이다.

김일성주석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하나의 로선을 세우고 정책을 작성하시여도 집무실에서가 아니라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시였다. 그 과정에 인민들의 의사를 알아 보시고 그들의 요구와 리익, 념원을 정확히 반영하시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시였다.

김일성주석께서는 조국광복후 54차에 685일간에 걸쳐 연 87개 나라를 방문하시였다. 그 로정의 연장거리는 52만 2, 460여키로메터에 달한다.

참으로 **김일성**주석은 력사에 없었던 현지지도라는 대중령도의 새로운 방식으로 당과 국가, 무력건설과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조선중앙통신 주체91, 4월 13일

백두산을 우러른다 2

혁명의 성산 백두산

나라마다 민족마다 민족의 성지 또는 민족의 **으로 숭상하는 산이나 고장, 건물과 동물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느 곳이나 **** 백두산과 같이 민족재생을 안아오고 민족자주위업이 개척되었으며 민족의 거룩한 뜻과 얼이 깃든 거대한 의미는 없는 것이다.

백두산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담력과 **의 상징, 민족의 상징으로 되고 있다. 그것은 백두산이 민족재생의 발원지, 민족자주위업의 발진지, 그 완성의 사령탑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백두산은 죽었던 우리 민족을 재생부활시키고 민족의 자주위업의 시원을 열어놓았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우리 민족이 망국노의 운명을 안고 몸부림치던 암흑의 그 시기 백두산에 타고 앉으시어 피어린 투쟁으로 민족재생의 조국광복을 이룩하시었다. **김일성**주석님께서 백두산에서 개척하신 주체위업은 오늘 백두산의 위대한 아들이신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한치의 편차도 없이 끗끗이 이어지고 있다.

백두산이 낳은 희세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백두의 사상과 정신으로 시대의 진로를 개척해나가시고 백두의 의지와 담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이끄신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백두산에 고향을 둔 백두산의 아들이시기에 사상과 성격, 취미도 신통히도 백두산을 닮으셨다. 그래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정치는 백두혈전의 나날 **김일성**주석님께서 좌우명으로 삼으셨던 이민위천을 구현한 인덕정치, 광폭정치이다. 또한 하나의 전략전술을 세워도 천변만화의 백두산천지조화처럼 세우시고 당을 영도해도 백두의 혁명정신이 꽉찬 필승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군대를 통솔해도 천하무적의 백두강군으로, 국가를 건설해도 백두산악과 같이 끄떡없는 강성대국으로 일떠세우신다. 말 그대로 백두산의 전도와 슬기가 그분의 온몸에 차고 넘쳐 옷을 입으셔도 빨찌산복과도 같은 수수한 잠바옷을 입으시고 잠에 드셔도 빨찌산처럼 쪽잠으로 피곤을 푸시고 끼니를 에워도 빨찌산처럼 주먹밥을 드시고 노래를 감상해도 빨찌산행진곡과 같은 혁명군가를 좋아하신다.

백두산형의 인간, 백두산형의 위인이신 **김정일**장군님의 뛰어난 정치실력은 지난 7년간 혁명실천을 통해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역사에 유래없는 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제국주의연합세력을 격파하고 조국과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의 운명을 수호하셨다.

지난 20세기 90년대의 북미핵대결은 제국주의자들과의 총포성없는 전쟁, 선전포고 없는 준엄한 대결이였다. 지구상에서 자주와 정의,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반혁명적 공세와 도전이 극도에 달했다. 사회주의보루인 이북에 대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은 더욱더 심화였다. 설상가상으로 이북 민중은 민족의 어버이를 잃는 민족최대의 대국상을 당하였으며 연이은 엄혹한 대자연재해로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시련과 난관을 겪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사실 땅덩어리가 작고 인구수가 많지 않으며 게다가 분열된 나라가 고립무원한 처지속에서 제국주의연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이 대결은 이북 민중의 운명만이 아닌 사회주의운명과 인류의 자주위업의 전도까지 거머쥐고 사생결단의 싸움을 벌여야 하였던 준엄한 전쟁이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노예가 되느냐 아니면 자주적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지키느냐 하는 판가리싸움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혁명영도로 쾌승을 거두셨다.

그토록 첨예한 조미핵대결의 승리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의 격파,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의 발표와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적 진전, 국제적인 고립포위환을 산산히 짓부시고 이북의 대외적 권위강화, 이 모든 것은 선군의 위력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선군정치야말로 최악의 역경속에서 강성대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놓게 한 승리의 보검이다.

오늘 세계는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 구호를 높이 들고 나남의 봉화따라 강성대국의 영마루를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고 있는 이북의 장엄한 모습을 통해 선군정치야말로 근로민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정치방식이며 백전백승의 위력을 전도하는 만능보검임을 직시하고 있다.

새 역사연구회 정진철회원은 ≪이북은 선군의 총대로 침략의 총검을 제압하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고 있다. 이북군에 의해 세계 최대의 전쟁화약고인 한반도에서 평화가 유지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유지군은 미군이 아니라 이북군이다. 진정 선군정치는 민족의 존엄과 평화를 지키는 생명선일뿐 아니라 번영의 대문을 여는 행운의 열쇠이다.≫라고 쓴 것은 이를 웅변적으로 실증해주고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선군정치는 총대중시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일찍이 위대한 백두산총대가정, 군인가정에서 탄생하시어 총과 숨결을 같이 하신 장군님이시기에 혁명의 총대를 억세게 거머쥐시고 총대로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고 영원히 빛내이시려는 것이 바로 그분의 총대정신이다.

장군님의 총대정신에는 만경대가문의 총대역사가 깃들어 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김일성**주석님께 남기신 유산은 지원의 뜻이 어린 2자루의 권총이었고 **김일성**주석님께서와 김정숙여사께서 **김정일**장군님께 물려주신 유산도 백두산에서 시원된 자주위업을 총대로 사수하고 기어이 완성해 낼 것을 바라시는 원대한 뜻이 담긴 2자루의 권총이었다.

장군님의 총대중시사상은 장군님의 어린 시절에 이미 형성되었다. 21세기 연구위원회 최덕준교수는 ≪빨찌산의 아들≫이라는 글에서 ≪**김정일**장군은 백두산에서 항일대전에 태어나시며 성장하셨다. 이 나라의 가장 훌륭한 애국투사들이고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지략있는 민족의 **들인 빨찌산들속에서 장군께서 성장하셨다. 어리신 장군께서 제일 애용하셨던 놀이감도 투사들이 만들어드린 나무권총과 조국의 쪽무의 지도였다. 그분께서는 그 나무권총에서 영장의 기개를 닦으셨고 그 쪽무의 지도에서 절세의 위인의 애국심을 키우셨다. 장군께서는 그때 벌써 조국과 민족을 알고 혁명을 아셨다. 사랑과 증오도 아셨고 총대의 철학도 새기셨다.

항일대전은 정녕 장군께 투철한 자주정신과 필승의 신념을 키워준 폭풍우속의 교양, 혁명의 배움터였다.≫고 썼으며 2000년에 발행된 이남의 출판물인 ≪**김정일**의 통일전략≫에 ≪어리신 **김정일**위원장께서 보신 것은 전설의 영웅 **김일성**주석의 지휘아래 일사분란하게 단결하여 미군의 맹렬한 폭격과 싸우고 있는 조선백성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소년 **김정일**위원장께서 보신 것은 1953년 7월 27일 사상 최강의 초대국 미국을 물리치고 전승을 축하하는 조선인민군과 국민의 모습이었다.≫라고 쓰여진 것처럼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 탄생하시어 항일대전의 불길속에서 성장하시고 반미대전의 포화속에서 영장의 슬기와 담력을 키우신 장군께서는 총대로 개척된 주체위업을 총대로 기어이 완성할 철의 의지를 가다듬으신 것이다.

이렇듯 백두의 혁명정신, 총대정신을 구현한 선군정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더불어 세기와 세기를 이어가며 인류의 자주위업완성의 그날까지 필승의 보검으로 그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게 될 것이다.

변혁과 승리의 상징이신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민족의 진두에 서시어 빛나는 승리에로 확신성있게 이끄시기에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굳건히 고수될 것이며 보다 광명한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것이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암흑의 밤하늘에 백두산 장수별로 떠오르시어 우리 겨레에게 민족재생의 희망과 봄을 주시고 마침내 조국광복의 새 봄을 안겨주신 것처럼 오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민족의 태양으로 백두산마루에 거연히 솟아 향도의 햇발을 뿌려주시기에 우리 조국은 머지않아 반드시 통일될 것이며 우리 민족은 백두산민족, 태양민족으로써의 존엄과 기상을 만방에 높이 선양하게 될 것이다.

(내일 계속)

한민전 평양대표부 대표 박광기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장병들의 레식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며 어버이수령님께와 경애하는 **김정일**최고사령관께 충성을 맹세하는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장병들의 레식이 12일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 엄숙히 거행되였다.

조선인민군 조명록총정치국장, 김영춘총참모장, 김일철인민무력부장과 조선인민군 군종, 병종 사령관들, 장령, 군관, 군인들이 레식에 참가하였다.

조명록은 연설에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생애는 불세출의 위인, 현대사의 가장 걸출한 수령의 력사로 찬연히 빛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인민군장병들은 천만년 세월이 흘러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군건설과 군사활동을 철두철미 수령님식대로 해나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인민군장병들은 그 어떤 천지풍파속에서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수반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해 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륙해공군장병들은 연설에 화답합창하며 총대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보위하고 끝까지 완성해 나갈것을 엄숙히 맹세하였다. 조선인민군 륙해공군장병들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4월 13일

김일성주석의 동상 각지에 건립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동상이 ≪광복의 천리길≫개천혁명사적지에 건립되였다.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건립된 동상은 나라 찾을 큰 뜻을 품으시고 ≪광복의 천리길≫을 걸으시는 그이의 숭엄한 영상을 형상하고 있다. 동상제막식이 13일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등이 제막식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주석의 동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이어 철도성, 지방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조선인민군 부대, 공장, 기업소, 학교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주석의 동상에 진정되였다.

한편 이날 **김일성**주석의 동상이 건립된 청진시 라남구역에서도 동상제막식이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총리 홍성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한성룡 등이 제막식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주석의 동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이어 지방 당, 정권기관, 경제기관, 근로단체, 조선인민군 부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주석의 동상에 진정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13일

태양영생의 신념과 태양숭배열기

한민전 평양대표부 12일 태양절맞이 기자회견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90돌에 즈음해 한민전 평양대표부 박광기대표가 12일 평양에서 국내외 기자들과 회견을 가졌습니다.

박광기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남 민중들의 가슴속에 더욱 뜨겁게 굽이치고 있는 태양영생의 신념과 태양숭배열기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박대표는 먼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20세기 우리 민족사를 빛나게 장식하신 영원불멸할 대공적으로 하여 이남 민중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석님의 한생은 겨레의 통일열망을 안으시고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치고 삼천리에 거센 통일의 열풍을 일으켜오신 위대한 통일의 구성, 자애로운 민족의 어버이의 한생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오늘 이남 민중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어 주석님의 영생이 확고히 담보되고 통일강성대국으로 번영할 민족의 밝은 미래가 펼쳐지고 있는데 대해 커다란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남 민중은 무적필승의 비범한 선군정치로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지켜주시며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겨레의 조국통일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이남 민중의 애국투쟁에서 주목되는 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6.15남북공동선언의 진수인 ≪우리 민족끼리≫정신을 확고한 투쟁의 기치로 삼고 반미자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대장정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주체의 태양 **김일성**주석님과 21세기의 태양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주체의 궤도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이남의 전위투사들과 애국민중은 영광 넘친 투쟁의 길에서 조국통일의 새아침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국의 소리 뉴스 4월 13일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개막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90돐을 맞으며 14일 평양에서는 제2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이 성대히 개막되였다.

개막식이 4. 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여러 나라 정부문화대표단과 대표들, 예술인들, 해외동포예술인들, 제5차 현 시대와 민족예술에 관한 미학토론회에 참가할 여러 나라 대표단, 대표들이 개막식장에 입장하였다.

홍성남내각총리를 비롯한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과 관계부문 일군들, 시내 근로자들, 예술인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또한 조선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 외국손님들,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축전조직위원회 장철 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그는 축전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지난번과 같이 이번 축전에 펼쳐 질 아름답고 특색 있는 예술화폭들이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인민들을 고무하고 태양절을 맞는 조선인민의 기쁨을 더 해줄것이라고 하면서 축전 개막을 선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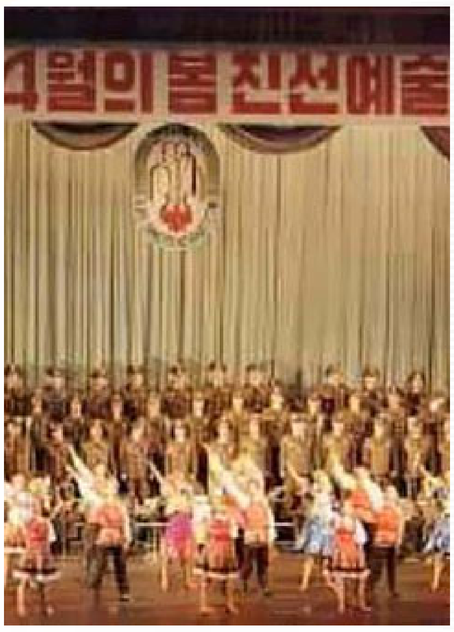
이어 축전기발이 게양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부위원장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이어 중국정부문화대표단 단장과 로씨야정부문화대표 등의 연설이 있었다.

이에 앞서 축전참가자들의 대예술행진이 수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열렬한 환영속에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4월 13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우리의 ≪인권문제≫걸고 든 미국을 규탄

보도에 의하면 지난 8일에 진행된 제58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미국측대표가 우리를 ≪인권상황이 심각한 국가≫로 지명하였다 한다.

이것은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꺼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적영상을 훼손하고 우리에 대한 압력공세를 계속하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직접적반영으로서 도저히 허용할수 없다.

미국은 해마다 발표하는 ≪인권에 관한 년례보고서≫를 통하여 그리고 기회 있을때마다 우리의 그 무슨 ≪인권상황≫에 대하여 떠들면서 터무니없이 걸고 들었다.

그때마다 우리는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자주권과 생존권, 평등권, 발전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며 따라서 ≪인권문제≫란 있을수 없다는데 대하여 명백히 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제 집안에서 떠들다 못해 이번에는 국제무대에 나가서까지 사실을 날조하여 ≪북조선이 혹독한 인권유린행위를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다느니, ≪주민들에게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우리에 대한 비방의 도수를 높이였다.

이것은 미국이 여전히 우리의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당과 대중을 리탈시키며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변경시켜 보려는 불순한 기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는것을 시사해 주는것이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와 지는 법인데 미국이 여전히 우리를 비방중상하는 조건에서 우리도 미국에 대해 할 소리를 하지 않을수 없다.

인민들의 자유를 유린하는 문제만 놓고 보아도 그것은 우리에게서 론의될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에서 거론되여야 한다.

미국식인권기준의 표본인 ≪미국식자유≫는 딸라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서 인간을 금전의 노예로 만들고 있으며 미국의 절대다수 근로대중은 초보적인 인권의 자유와 생존권마저 지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권이자 국권인데 미국의 다른 나라에 대한 국권유린행위는 이루다 헤아릴수 없다.

미국은 력사상 70여차례의 전쟁과 군사개입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주권과 인권을 침해한 사실을 그 무엇으로써도 부정할수 없다.

미국은 ≪인권문제≫를 구실로 주요자원지대와 군사전략적요충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지역문제, 분쟁문제들을 무력으로 평정해 왔다.

미국이 ≪힘≫을 사용할 때마다 들고 나온 구실이 바로 해당 나라의 ≪인권문제≫였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제반사실은 미국이 론하는 ≪인권문제≫라는것이 바로 미국의 정치적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오늘 미국이 제 허물은 덮어 두고 있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유린상황≫을 운운하는것은 그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다.

인권유린의 불모지에 틀고 앉아 세계 ≪인권재판관≫의 행세를 하고 있는 미국이야말로 국제사회의 비난의 대상으로 되지 않을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4월 14일

북남 각계 단체 대표들의 금강산 접촉 진행, 공동성명 발표

북과 남의 각계 단체 대표들의 접촉이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있었다.

북과 남의 각계 단체들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서 올해의 통일운동이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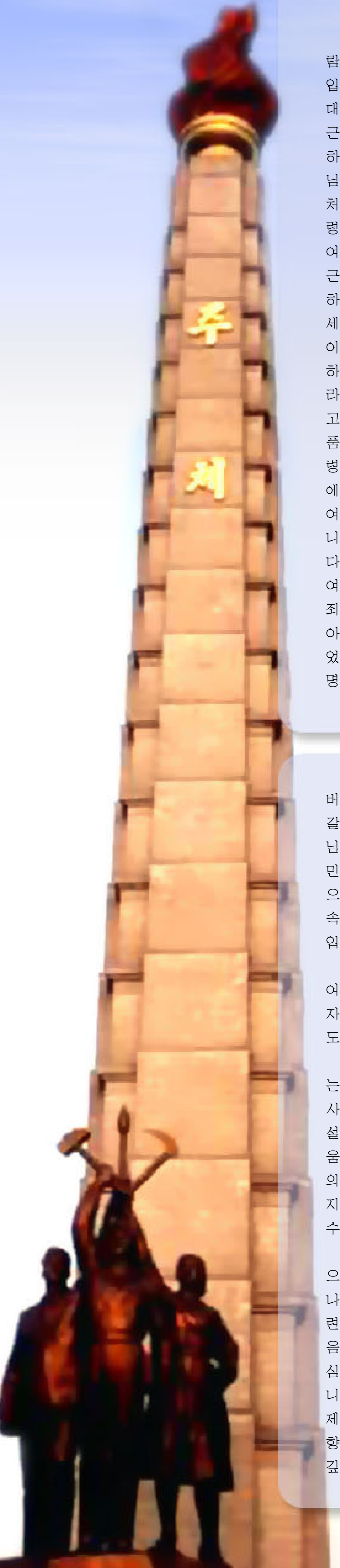
1. 북남단체들은 지난 4월 5일 평양에서 쌍방당국사이에 발표된 공동보도문을 적극 지지환영하며 그 실천을 힘 있게 도와 나설것이다.
2. 북남단체들은 올해 통일운동을 6.15공동선언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에 의한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해 나갈것이다.
3. 북남단체들은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접촉과 대화를 더욱 발전시켜 올해 통일운동을 활성화해 나갈것이며 이 길에서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모든 단체들과 함께 손 잡고 나갈것이다.
4. 북남단체들은 6.15민족통일대축전과 8. 15민족공동행사 그리고 북남녀성통일대회, 북남청년학생통일행사를 비롯한 각 부문별 통일행사들을 진행하며 이 통일행사들을 진행할 장소 등 구체적인 문제들은 계속 협의확정해 나갈것이다.
5. 북남단체들은 련대와 단합을 도모하고 협력과 교류를 더 활발히 진행해 나갈것이다.

주체91(2002)년 4월 12일

금강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여 나가자(2)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하신 담화 / 주체91(1992)년 4월 17일



인민에 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품은 만사람을 뜨겁게 안아주는 한량없이 넓은 품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인민을 절대적인 존재로 내세우시고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쳐오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내세우시는 인민은 단순히 계급적처지만을 염두에 둔 개념이 아닙니다. 수령님께서는 비록 자산계급출신이라고 하여도 자신을 근로인민대중과 결합시키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여 투쟁하는 사람이라면 인민의 한 성원으로 내세우시였으며 그들을 혁명의 동행자로 믿어주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사람을 대하는데서 출신성분이나 과거경력이 아니라 현재의 사상을 기본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각계각층 군중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굳게 묶어 세우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어제날의 반공분자나 민족앞에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오늘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겠다고 하면 너그럽게 안아주십니다.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몸바치겠다는 애국애족의 정신을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시고 어제날의 반공분자나 민족앞에 죄를 지은 사람도 다 너그럽게 한품에 안아주신 수령님의 그 위대한 포용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부작예술 영화 ≪민족과 운명≫도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여 훌륭히 만들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 수령님의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사랑의 품은 온 민족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사상과 정견, 당파와 신앙, 정치생활경위가 어떠하건 관계없이 수령님을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로 우러르며 통일성업에 떨쳐나서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가장 숭고한 덕성을 지니신 어버이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의 품속에서 보람차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영도자는 누가 내세워주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룩한 업적으로 하여 인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습니다. 수령님께서 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고있는 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기 때문입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14살 어리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지하혁명투쟁과 두차례의 혁명전쟁,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두차례의 복구건설사업,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사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약소민족으로 억눌리고 짓밟히던 우리 인민을 조직영도하시여 강대한 일제와 미제를 타승함으로써 민족해방전쟁사에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시였으며 그처럼 짧은 기간에 페허를 헤치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 창조와 건설의 역사에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였습니다. 이 세기적인 승리와 전변은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를 떠나서는 결코 생각할수 없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탁월한 영도자로서 세계인민들의 자주위업수행에도 불멸의 공적을 쌓아 올리시였습니다. 수령님의 업적을 놓고 보면 그 하나하나가 다 세상사람들의 찬탄을 불러일으키는 빛나는 업적입니다. 우리 수령님과 같이 당대에 그처럼 위대한 업적을 이룩한 영도자는 동서고금에 없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뛰여난 업적으로 하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도자로 만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칭송을 받고계십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고록에 ≪혁명하는 사람은 언제나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백번 승리하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게 되면 백번 패한다는 진리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쓰시였습니다. 이 철학적 명언에는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그토록 위대한 업적을 이룩하시게 된 비결이 밝혀져 있습니다. 역사적 경험은 인민을 믿고 인민에 의거하면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사회주의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지만 인민의 버림을 받으면 사회주의전취물을 지켜나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업적은 인민을 위하여 인민과 함께 이룩하신 업적이며 바로 이것으로 하여 수령님의 업적은 인민의 마음속에 기리 빛날 불멸의 업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은 인민대중에게 자기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나갈수 있는 지도사상을 마련하여주신 것입니다.

인민의 운명은 옳은 사상의 향도가 없이는 개척되여 나갈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사회는 옳은 지도사상의 향도밑에서만 건설할수 있습니다. 금력과 권력에 의하여 움직이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집단주의에 기초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는 옳은 지도사상이 없이는 한걸음도 움직여나갈수 없습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인민대중의 운명을 빛나게 개척해나갈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을 마련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을 모든 사고와 실천의 중심에 놓고 사회주의이론을 전개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진리는 기성이론의 명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자주적 지향과 혁명투쟁의 실천 속에 있다는 것을 깊이 헤아리시고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염원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민대중의 염원을 반영하고 그들의 투쟁경험을 분석종합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이론을 전면적으로 완성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와 자연의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대중의 요구를 헤아리시고 인민대중을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내세우시였으며 인민대중이 자신의 힘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찰하시고 인민대중을 세계의 개조자, 자기운명의 개척자로 내세우시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인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며 모든 문제를 세계의 개조자, 자기 운명의 개척자인 인민대중의 창조적 힘과 지혜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야 한다는 관점과 입장을 확립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와 창조적 능력을 정확히 반영한 가장 우월한 사상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음으로 하여 위대한 생활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오늘의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것은 주체사상을 가지고 있기때문입니다. 우리 당은 변함없이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것입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인민을 위하여 이룩하신 위대한 업적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주체형의 정치조직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자면 투쟁을 조직지도하고 생활을 보살펴주는 정치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인민대중은 정치조직을 떠나서 제각기 활동하여서는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갈수 없습니다.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운명은 수령의 영도밑에 개척되며 수령은 당과 정권기관을 비롯한 정치조직을 통하여 모든 사회성원들의 운명을 보살펴줍니다. 그러므로 당과 정권기관을 비롯한 정치조직들을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치조직으로 꾸리는 것은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관건적인 문제로 나섭니다.

사회주의사회의 정치조직들 가운데서 영도적 정치조직은 노동계급의 당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노동계급의 당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어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노동계급의 당이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자면 영도적 지위를 차지하여야 합니다. 인민의 운명에 대한 노동계급의

수령님께서는 진리는 기성이론의 명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민의 자주적 지향과 혁명투쟁의 실천 속에 있다는 것을 깊이 헤아리시고 모든 문제를 우리 인민의 염원과 우리 나라의 구체적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시였습니다.

당의 책임과 그 영도적 지위는 결코 분리될수 없습니다. 노동계급의 당이 자기의 영도적 지위와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당자체의 자멸행위로 될 뿐아니라 인민의 운명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배신행위로 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이 사회의 정치적 향도자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이것은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숭고한 사랑과 높은 책임성의 표현입니다. 우리 인민은 조선노동당을 자기의 정치적 향도자로 믿고 당에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노동계급의 당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당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자면 자기 활동에서 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최고 원칙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당원들이나 노동계급의 지지만 받는 당으로 되여서는 안되며 전체 인민의 지지를 받는 당으로 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당이 인민대중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노동계급의 당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당으로 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당건설사상을 내놓으시였습니다. 지난 시기에는 당을 일정한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계급의 조직된 부대로, 계급투쟁의 무기로만 보았습니다. 노동계급의 요구는 사회적 진보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모든 계급과 계층의 요구와 일치하므로 노동계급의 당은 마땅히 광범한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당으로 되여야 합니다. 더우기 각계각층 군중이 다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전환된 사회주의사회에서 노동계급의 당이 광범한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당으로 되여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노동계급의 당이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당으로 되자면 근로인민대중을 자기의 계급적 지반으로 하고 광범한 대중속에 뿌리박은 대중적 당으로 건설되여야 합니다. 당을 대중적 당으로 건설하는 것은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는 노동계급의 당건설의 본성적 요구입니다. 수령님께서는 독창적인 대중적 당건설노선을 제시하시고 우리 당을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선진분자들로 이루어진 대중적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노동계급의 당을 광범한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당으로, 대중적 당으로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그 계급적, 혁명적 성격을 약화시키거나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동계급의 당이 광범한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하여 노동계급의 계급적 요구를 포기하여서는 안되며 대중적 당으로 건설한다고 하여 아무나 당에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노동계급의 당은 광범한 인민대중의 이익을 옹호하면서도 노동계급의 계급적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하며 근로인민대중을 자기의 사회계급적 지반으로 하면서도 그들속에서 선진분자만 자기 대오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우리 당은 노동계급의 당으로서의 계급적, 혁명적 성격을 확고히 고수하면서 전체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당으로, 광범한 대중속에 뿌리박은 대중적 당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데서 국가정권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정권기관은 철두철미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정권기관으로 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정권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의 대표자, 창조적 능력과 활동의 조직자가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고 우리 인민정권기관이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를 철저히 옹호하고 그들의 창조적 능력을 키워주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적 힘을 옳게 조직동원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선행이론에서는 인민대중을 억누르는 착취사회의 국가정권과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회주의사회의 국가정권의 본질적 차이를 주로 계급적 성격에서의 차이로 보면서 국가정권을 일정한 계급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독재의 무기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재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정권이 무계급사회에 가서는 조락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국가정권은 사회에서 주인의 지위를 차지하는 계급과 사회적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무기라는 것을 새롭게 밝히시였습니다. 착취사회의 국가정권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인민대중을 다스리는 무기이지만 사회주의사회의 국가정권은 사회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무기입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매개 근로자들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지만 전체 인민의 자주적 권리는 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선거되는 인민정권에 의하여 대표됩니다. 인민대중의 창조적 능력을 키우고 그들의 창조적 힘을 조직동원하는 사업도 인민정권과 같은 위력한 정치조직에 의하여서만 원만히 수행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정권기관이 인민대중자신에 의하여 세워지고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철저히 옹호하며 인민대중의 창조적 능력과 활동을 능숙하게 조직하는 정치조직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되여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정권은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 되여야 한다는 것을 밝히시고 우리 인민정권기관이 호주와 같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주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착취사회의 정권기관은 인민에 대한 지배계급의 착취와 약탈을 보장하는 무기로 복무하면서 인민들이 굶어죽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정권기관이 인민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줍니다. 수령님께서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워주시고 인민정권기관이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아주도록 이끌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인민정권기관은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올수 있었습니다.

당과 인민정권기관이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자면 일군들이 옳은 사업 방법과 작풍을 가져야 합니다. 당과 인민정권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신뢰도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에 많이 달려있습니다. 아무리 당과 정부의 노선과 정책이 정당하여도 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이 허용되면 군중이 당과 정권기관을 따르지 않게 되고 나중에는 노동계급의 당과 인민정권의 존재자체를 위험에 빠뜨릴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과 인민정권을 세우신 첫날부터 세도와 관료주의를 반대하고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확립하는 것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당과 정권기관 일군들은 인민우에 군림하는 관료가 아니라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일군들속에서는 혁명적 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이 확립되게 되였으며 우리 당과 인민정권기관은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과 공화국정권이 인민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고 돌보아주는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권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당과 인민정권을 인민의 복무자로 튼튼히 꾸리고 그것을 무기로 하여 인민의 자주위업을 끝까지 실현하여나갈것입니다.

(내일도 계속됩니다)

2권 제6장

시련의 해

1. 남만으로
2. 마지막 모습
3. 기쁨과 슬픔
4. 합작은 불가능한가?
5. 단합의 이념아래
6. 구국군과 함께
7. 소사하의 가을
8. 라자구등판에서

4. 합작은 불가능한가?(2)

우리는 다음날 아침식사후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의 꼭지를 뗀 것은 량사령이었다. 그가 그때 나에게 한 첫 말은 이런것이였다.

≪대장도 알다싶이 지금 만주땅은 벌둥지가 됐네. 숱한 벌들이 일본이라는 불청객을 쏘겠다고 독을 물고 일어났네. 당취오, 리춘윤, 서원원, 손수암, 왕봉각, 등철매, 왕동헌 이건 다 동변도의 벌들이구 동만과 북만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벌들이 일어났나. 이런 때에 우리두 합세해서 잘 싸우면 이길수가 있다고 보는데 대장생각은 어떤가?≫

그가 한 말은 우리의 원정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였다. 량사령이 스스로 합작에 대해서 모색하고 그것을 주동적으로 우리에게 제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고맙고 다행한 일이었다.

나는 독립운동전반을 대국적 견지에서 부감하는 량사령의 높은 안목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그의 제의를 흔연히 받아들이였다.

≪합세해서 싸우자는 사령님의 말씀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 문제를 의논해보려고 사령님을 찾아왔습니다. 조선의 무장부대들이 서로 합세하고 중국의 무장부대들도 서로 합세해서 조중 두 나라 애국자들과 인민들이 한덩어리가 되어 싸우면 능히 일제를 타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량세봉은 그 말을 듣자 미소를 지었다.

≪대장이 동감이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서로 진지하게 의논해보세.≫

≪그런데 사령님, 시국은 단결을 요구하는데 우리 민족내부는 유감스럽게도 단결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의 내부도 단결이 안되고 민족주의자들이 내부도 단결이 안되고 또 민족주의자들과 공사주의자들 호상간에도 단결이 안되고 있으니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일본이라는 강적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 좌익에 섰다는 층이 정치를 잘못하는 탓이야. 대장도 좌익이라니 그런 물계는 잘 알겠지만 그들이 투쟁을 과격하게 내밀기 때문에 인심을 잃었단 말일세. 소작쟁의를 해서 농사군들을 폭군으로 만들구, 무슨 적색 5월이요 해가지고서는 지주를 처단하구 이렇게 하니까 중국사람들이 조선사람들을 소닭보듯이 하거든. 이건 순전히 공산주의자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의 실책이야.≫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해온 온갖 폭력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다. 나는 그가 로동자, 농민들을 적대시하고 지주나 자산가들을 동정하는데로부터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량세봉자신도 독립운동에 관여하기전까지는 지독한 령세농민으로 고생을 많이 해온 사람이었다. 그는 섣달그믐께부터 매번 지주의 빚독촉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단련을 받아오군한 채무노예에 가까운 소작농이었으며 무시래기에 피쌀을 쑨 죽으로 기아의 해들을 기적적으로 돌파해온 빈농민의 후예였다.

나는 또한 그가 공산주의자들이 조직한 폭력투쟁을 비난하는 것은 공산주의리념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도 아니며 또 그 반대의 리념이 자본주의사상을 옹호하기 때문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가 조소하고 비판하는 것은 일부 공산주의자들의 운동방식이나 투쟁방법이었지 공산주의리념 그자체는 아니었다. 그러나 방법에 대한 립장과 태도는 곧 리념에 대한 인식과 관점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초기공산주의자들이 대중운동을 지도하는데서 범한 좌경적오류는 유감스럽게도 새 사조를 동경하던 많은 사람들의 넋속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애정을 추방하는 가슴아픈 결과를 빚어냈다. 나는 량세봉사령과의 담화를 통해서도 만주지방에서 공산주의기성세대가 범한 과오의 후과가 얼마나 막대한가 하는 것을 다시한번 새삼스럽게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일부 공산주의자들이 대중투쟁과정에 범한 좌경망동적 과오를 시인하였다. 그러면서도 대중투쟁일반을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는 해독행위로 묘사하는 량세봉의 편견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사령님의 말씀과 같이 조선공산당출신의 지도인물이 계급투쟁을 하는데서 지나친 탈선을 한 것만을 사실입니다. 그들의 좌경망동바람에 사실은 우리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조선사람이 일본놈의 앞잡이라는 인식까지 낳게 한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사령님, 농민이 지주를 반대해서 들고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령님도 농사를 많이 지어보아서 아시겠지만 가을에 가서 지주에게 차례지는 것이 얼마인데 농민들에게 차례지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죽도록 일해서 농사지은 것은 다 빼앗기고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우니 농민들도 살아보겠다고 소작쟁의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덮어놓고 열닷냥금으로 다 나쁘다고 할 수야 없지 않습니까?≫

량사령은 내가 대중투쟁의 불가피성을 변론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 변론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였는지 아무 응대도 하지 않았다.

그날 독립군부대에서는 반일인민유격대를 위한 환영회를 열었다. 독립군대원들속에는 류하와 흥경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파견한 ≪ㅌ·ㄷ≫성원들과 정치공작원들에 의하여 공산주의적인 영향을 받는 청년들이 많았다. 그런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환영회인것만큼 대단히 성대하고 열광적이였다. 그 환영회에서는 통화현성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도 많이 참가하였다.

주인과 손님이 서로 차례를 엇바꾸어가면서 연설도 하고 노래도 불렀는데 환영회의 모든 공정에서 반일인민유격대와 독립군의 개성상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독립군대원들은 반일인민유격대들의 소탈하고 겸손하고 락관적인 품성과 절제가 있고 기백이 있고 질서정연한 대오의 면모에 부러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이 제일 부러워한 것은 우리 대원들이 부르는 혁명가요와 38식 보총이었다.

어떤 독립군대원들은 ≪저런 끌끌한 군대가 소문도 없이 갑자기 어디서 생겨났는가.≫고 하면서 어리둥절해하였고 어떤 독립군대원들은 ≪당신네와의 합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 량사령과의 담판이 어떻게 되었는가?≫고 묻기도 하였다.

량사령은 그날 성주가 데리고 온 군대를 보자고 하면서 반일인민유격대를 방문하였다. 우리 대원들은 박수도 치고 거수경례를 붙이면서 정신이 번쩍 들게 환영을 잘하였다 그런데 그만 량사령이 반공연설을 하는 바람에 모처럼 마련되었던 환영분위기는 적대적분위기로 바뀌여졌다.

≪조선독립을 성사시키려면 우선 리적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공산당은 지금 리적행위를 하고 있다. 공장에 가서는 자본가와 로동자가 싸우게 하고 농촌에 가서는 지주와 농민들이 싸우게 하고 가정에서는 남녀평등이라 하여 안해와 남편이 싸우게 한다. 적하면 수탈이요, 타도요 하면서 동족간에 불화의 씨를 뿌리고 이민족사이에도 불신의 벽을 쌓는다.≫

우리 동무들은 모두 그의 연설을 듣고 분개하였다. 차광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량사령을 원망스럽게 쳐다보기만 하였다.

반공으로 일관된 량세봉의 연설에 대해서는 나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나는 그가 왜 그런 연설을 하는지 리해할 수 없었다.

≪사령님, 우리는 그런 리적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조선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며 근로민중의 리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입니다. 독립하자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로력자대중이 중심이 되어 투쟁해야지 그저 옛날식으로 몇몇 영웅호걸들의 힘만으로는 안됩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자 우리 동무들은 입을 모아 국민부를 공격하였다. 국민부가 왕청문에서 애국청년 여섯명을 리유없이 살해한 것은 리적행위가 아닌가, 민족앞에 그런 대죄를 짓고서도 국민부 집단은 감히 그 무슨 리적행위를 운운하면서 우리를 구박할 수 있는가고 떠들어댔다.

그러자 량사령은 노염을 타면서 우리들에게 욕을 막 퍼부었다.

그 노여움이 도수가 지나치고 례의에 어긋나는 것이였기 때문에 나도 아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갑자기 리성을 잃고 우리를 질책하는 것이 어쩐지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우리의 몇마디의 말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이나 아닌가, 아니면 합작을 달가와하지 않는 어떤 인물이 량사령에게 우리를 걸고 나쁜 말을 한 것이나 아닌가, 어쨌든 그가 노여움을 타는데는 무슨 곡절이 있을 것 같았다.

독립군사령 량세봉

하지만 나는 인내성있게 그를 설복하였다.

≪선생님, 그렇게 노하실것까지야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건 좀 더 지내봐야 알게 아닙니까. 상대를 호상 리해하기 위해서는 사령님부대와 우리 유격대가 자주 접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는 량사령도 별로 응대가 없었다.

나는 량사령의 반공자세가 요지부동이긴 하지만 꾸준히 설복하면 그를 돌려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한가닥의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숙소로 돌아왔다. 남을 믿지 않는 것을 일종의 배타주의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면 남을 믿는 것은 최선의 인도주의라고 할 수있다. 국토침탈의 비운을 당한 나라의 애국자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인도주의란 민족단합을 이룩하는 것이며 단합된 민족의 력량으로 부모형제 동포자매들을 해방하는 것이라고 나는 간주하였다.

내가 태어난지 한달밖에 안되는 부대를 이끌고 천리밖에 있는 량세봉을 찾아온 것도 이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회담이 결렬된 그날 통화시내에 있는 우리의 조직원이 독립군이 반일인민유격대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를 보내주었다.

량사령이 그런 음모를 꾸민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우리는 만일의 경우를 생각하여 통화에서 벼락같이 철수하였다. 그렇게 되어 류본초선생과도 갈라졌다.

→

반일합작의 절박한 과제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독립군과의 충돌을 피해 통화를 떠난 반일인민유격대의 대오에는 음침한 기분이 떠돌고 있었다. 차광수는 대오의 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로정도가 그려진 목책을 들여다보며 덤덤히 발걸음을 옮기였다.

≪광수동무, 오늘은 왜 그렇게 성난 사람처럼 뿌루퉁해있소?≫

나는 그의 기분을 짐작하고 일부러 웃으면서 말을 걸었다.

차광수는 때를 만났다는 듯이 주머니에 목책을 집어넣으며 볼부은 소리를 했다.

≪그럼 이런 판국에 웃어야 하겠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울화가 치밀어 못견디겠소. 피를 흘리며 천리를 달려온 로고가 허사로 돌아가지 않았소.≫

≪왜 참모장동무는 독립군과의 담판을 실패작으로만 보려고하오?≫

≪그럼 실패작이 아니고 성공작이란 말이오? 어쨌든 량사령은 합작이 아니라 무장해제음모를 꾸미지 않았소.≫

≪참모장동무는 상층의 표정만 보았지 하층의 얼굴은 보지 못했구만. 독립군대원들이 우리 유격대를 보고 얼마나 감탄하고 부러워하였소, 나는 무장해제설보다 그걸 더 중시하고싶단 말이요. 중요한 것은 상층의 표정이 아니라 하층의 태도요. 나는 거기서 합작의 장래를 보고 있소.≫

이렇게 말하는 내자신에게도 합작의 장래에 대한 확고한 승산이 있은 것은 아니었다. 나는 그저 예감을 말했을 뿐이고 념원을 표시했을 뿐이다.

나도 사실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나를 지배하고 있던 고민이란 국적이 서로 다른 량사령과 당취오의 합작도 성사되고 우리와 우사령과의 합작도 성사되는데 동족끼리인 반일인민유격대와 독립군과의 합작은 불가능한가 하는 것이었다.

독립군이 그때 진실로 무장해제음모를 꾸몄는가 안꾸몄는가 하는 것은 오래동안 미지수로 남아있었다. 나는

량세봉부인을 만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그 정보가 조직원들이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이 근거 없는 정보이기를 바랬다. 설사 그것이 과학성이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나는 량사령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 인간의 사상이란 한계가 있는 법이며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시간과 체험이 소모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때 통화를 떠나면서도 독립군과의 합작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를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량사령이 언제인가는 꼭 우리의 진심을 리해하고 합작의 대문에 들어설 때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였다. 애국은 련공의 바다에로 가는 시내물과 같은 것이엇다.

여러해가 지난후 부대를 이끌고 조선인민혁명군에 병변하여온 독립군의 사령 최윤구는 나와 함께 1932년의 여름을 감회깊이 회고하였다. 최사령의 말에 의하면 그때 반일인민유격대의 무장을 해제할 음모를 꾸민 것은 량사령이 아니라 량사령의 수하에 있는 참모였다는 것이다. 원래 량사령은 반일인민유격대와 합작을 성사시키려고 하였는데 그 참모가 막후에서 반공마이크를 들고 우리를 쏠았으며 나중에는 자기의 심복부하들과 함께 우리 부대의 무장을 해제할 모의까지 하였다는 것이었다.

최윤구의 그 말이 량세봉사령에 대한 우리의 의혹을 완전히 풀어주었다. 량사령이 우리와의 거래가 결렬된 것을 두고두고 가슴아프게 생각하였으며 그가 우리를 반대하는 무장해제음모에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나는 안도감을 느끼었다. 그가 비록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애국심앞에서 결백하고 의리앞에서 한점의 부끄러움도 없는 인간임을 다시한번 확증할 수 있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나를 기쁘게 하였다. 자기가 훌륭하다고 본 인간이 수십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도 계속 훌륭한 인간으로 남아있으며 그 인간에 대한 깨끗한 인상에 때가 끼지 않고 얼룩이지지 않을 때 그보다 더 즐겁고 흐뭇한 일은 없다.

량사령의 과실은 간계를 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는 대바르고 강직한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턱밑에서 참모가 우리와의 합작을 류산시키려고 작간질을 하는 것도 몰랐다. 그리고 자기가 공산주의자들을 악랄하게 헐뜯을 때에도 그의 본심을 꿰뚫어보지 못하였다. 량사령이 억울하게 최후를 마친 것도 적의 간계에 속아넘어갔기 때문이었다.

량세봉사령이 반공으로부터 련공에로 방향전환을 한 것은 림종전이었다. 그 당시 독립군 내부는 매우 복잡하였다. 밀정들과 그에 매수된 앞잡이들의 해독행위가 우심해지는가 하면 부대를 떠나가는 락오자들과 탈주자들이 속출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산주의자들과의 합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울려나왔다.

량사령도 공산주의자들을 더는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조중 두나라 혁명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주세력으로 등장하여 천하를 쥐락펴락하는 새로운 격동기다 도래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자기의 립장을 랭철하게 검토하였으며 그 과정에 련공까지 결심하게 되었다.

공산주의에 대한 몰리해와 본의아닌 적대감에 포로되어 우리와의 합작마저 결심하지 못했던 량사령이 련공에로 방향전환을 한 것은 그자신의 생애는 물론, 독립군의 투쟁력사에서 하나의 특기할 사변이었다. 그가 반공을 배격하고 련공의 길을 택하였다는 것은 양정우와의 공동행동을 한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우리와도 합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의 헌병, 경찰기관들과 특무조직들은 량세봉을 살해하고 독립군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한 음모를 계획적으로 추진시켰다. 이 음모에는 봉천헌병대도 가담하고 조선총독부 후꾸시마기관도 미행하였다.

량세봉을 살해하기 위한 작전기밀비로 10여만원의 돈이 투하되었다는 말도 있다. 박창해를 비롯한 흥경의 밀정들도 이 작전에 동원되었다.

적들은 량세봉사령을 유인할 계책을 꾸미던 끝에 평소부터 그와 관계를 가지고 독립군을 협조해주던 배신자 왕가를 파견하였다. 어느날 왕가는 량세봉을 찾아와 중국항일군이 독립군을 원조하기 위하여 사령을 만나려고 한다고 회유하였다. 량세봉은 중국항일군이 원조를 약속한다는 말에 그만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왕가를 따라 항일군이 기다리고 있다는 대립자로 향하였다

왕가는 로상에서 문득 권총을 뽑아들고 ≪나는 이전날의 왕명번이 아니다. 목숨이 아깝거든 일본군에 항복하라.≫고 하였다.

량사령이 왕가에게 벽력같은 호령질을 하면서 무기를 꺼내들자 수수밭에 매복하고 있던 적들은 선손을 써서 일제사격으로 그를 살해하였다. 최일천이 묘사한 것처럼 ≪계림(조선)의 벌은 받아도 왜왕의 작록은 먹지 않는다.≫는 박제상의 충언이 그대로 사령의 혼이 되어 원쑤들을 질겁케 하였던 것이다.

량사령이 만일 좀 더 일찌기 련공의길에 나섰더라면 그의 운명이 달리 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때도 없지 않다. 물론 그의 죽음을 애달퍼하는 한가닥의 미련일 것이다.

≪나는 죽어서 항일을 할 수 없지만 너희들을 살아서 **김일성**사령을 찾아가라. 살길은 그 길밖에 없다!≫

량사령은 부하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고 눈을 감았다. 그것은 유언이라기보다도 반공의 벽을 부시고 뛰쳐나온 한 애국자의 죽음으로 탄생된 련공선언이었다

이 선언을 따라 4년후에는 통화거리에서 우리를 환영하던 300여명의 독립군대원들이 최윤구사령을 앞세우고 조선인민혁명군에 합세하기 위해 백두산으로 찾아 왔다. 그때 나는 화전에서 그들을 만났다.

환인현의 조선사람들은 적들에게 량사령의 시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마을뒤산에 그의 유해를 평토장으로 안장하였다. 평토장이란 지평면과 무덤의 높이가 동일한 봉분을 쌓지않은 평평한 묘를 말한다.

일본군경들은 그 묘마저 파헤치고 고인의 머리를 베여 통화시가에 걸어놓았다.

량사령의 유가족들은 모진 학대를 받았다. 그들은 일만군경들의 박해에 시달리다 못해 량가성을 김가로 고치고 철도에서 천여리나 떨어진 환인현의 심산벽촌에 들어가 두더지 같은 생활을 하였다.

나는 해방후 남만에 일군들을 파견하여 량사령의 유가족들을 조국에 데려오게 하였다. 그 일군을 따라 사령의 부인(윤재순)과 아들딸, 사위가 조국으로 나왔다.

≪아주머니, 그동안 사령님을 잃고 일본군경들에게 내내 쫓겨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내가 첫인사로 이런 말을 하자 윤재순녀사는 눈물을 흘리면서 한참동안 어깨를 떨었다.

≪장군님, 장군님의 얼굴을 보니 쌓였던 설움이 다 녹아서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쫓겨다니는 거야 무슨 큰 고생이겠습니까. 장군님께서 왜놈들을 쫓아내시느라고 고생이 막심하셨겠습니다.≫

≪싸움을 하느라고 바삐 보내다보니 소식 한번 전하지 못해 죄송스러웠습니다.≫

≪장군님, 오히려 저희들이 죄송스럽습니다. 우리는 그 산중에서도 장군님의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장군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이국의 원혼이 된 령감을 마음속으로 원망하군 했습니다.≫

≪그렇지만 량사령은 마지막 힘을 다할 때까지 굴하지 않고 잘 싸웠습니다.≫

그후 우리는 량사령의 아들 량의준을 만경대혁명학원에서 공부시키었다.

4월 남북련석회의때 이 학원을 참관한 김구선생은 거기서 량사령의 아들을 만나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나는 북조선당국이 빨찌산투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런 학원에서 독립군사령의 자제까지 공부시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학원에는 빨찌산투사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로조, 농조활동을 하다가 희생된 애국자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순국한 애국자라면 그가 어떤 계렬이든지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김구는 감격하여 ≪이 학원은 민족단합의 상징입니다!≫하고 말했다.

학원을 졸업하고 공군부대의 정치일군이 된 량의준은 전후에 비행기사고로 사망하였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몹시 락망하였다. 량사령의 혈통이 끊어진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도 량의준은 아들 하나를 남기고 돌아갔다. 그 아이의 이름을 량철수라고 하였다. 그런데 철수는 소아마비의 후과로 불구의 몸이 되었다.

당에서는 그를 인민학교에도 보내고 고등중학교에도 보내고 대학에도 보내여 14년동안 건강한 아이들과 꼭같은 교육과정을 마치게 하였다. 그가 **김일성**종합대학을 다니는 4년동안 그의 동무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그를 밀차에 태워가지고 다니며 17층에 있는 교실까지 오르내리었다. 애국선렬들에 대한 우리의 2세, 3세들의 존경심은 불구의 유자녀에 대한 따뜻한 애정으로 표현되었다. 지금 량철수는 공화국의 당당한 현역작가가 되어 침상에서 문학작품을 써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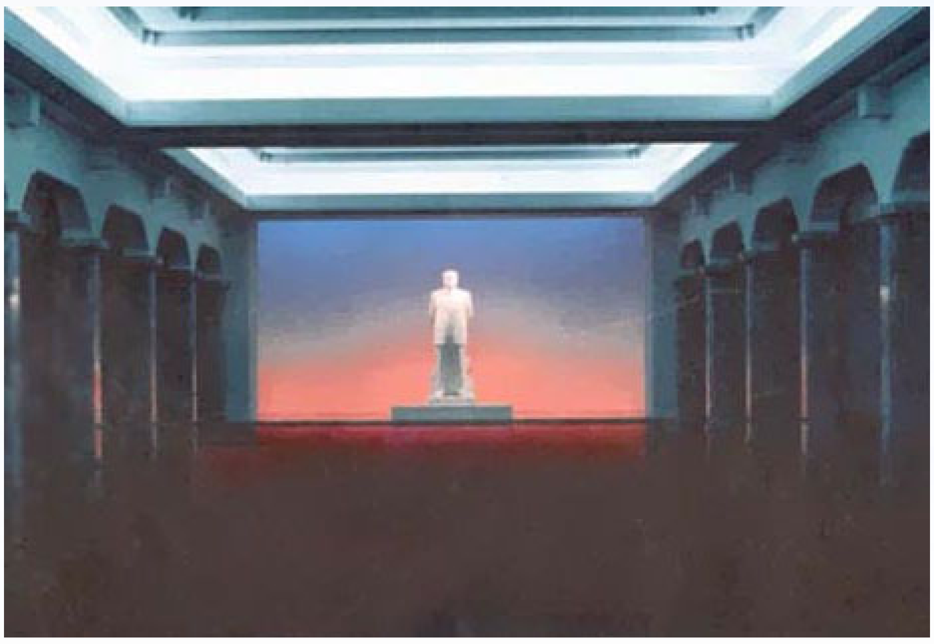
량철수에게는 2남 1녀의 자녀들이 있다. 혈통을 따지면 량세봉의 증손자, 증손녀들이다. 추석명절이 오면 그 애들도 부모를 따라 애국렬사릉에 있는 증조할아버지의 묘를 찾아가군 한다. 그들은 아직 자기네 증조할아버지의 생애를 얽어매고 있던 고뇌와 불행이 무엇이였던지를 알지 못한다.

그 천진한 것들의 어깨우에 다시는 반공이냐 련공이냐 하는 무거운 짐이 실리지 않기를 바란다. (끝)

김일성주석은 오늘도 집무보신다(1)

경사로운 4월의 봄, 누리에 넘치는 햇빛 우러러 이남 민중은 **김일성**주석에 대한 그리움에 가슴 설레인다.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시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이끌어주신 주석.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처럼 주석을 우러러 회를 묶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통일사업에 몸담아 온 우리들이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주석께서 계시는 평양의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달려간다. 오늘도 태양궁전에서 민중행열차에서 집무를 보시어 겨레와 인류를 인도하여주시는 만민의 어버이 **김일성** 주석에 대한 끝없는 감사와 경모의 정을 안고 나는 이 글을 쓴다.



태양궁전에서

김일성주석께서 생전에 집무를 보시던 금수산의사당. 지금은 주석께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 이 궁전에서 주석께서는 오늘도 **김정일**장군과 사업토의도 하시고 해내외 각계층을 만나 가르치심도 주신다.

나를 안내하는 박선생에 의하면 이 궁전은 **김정일**장군께서 친히 터전을 잡아주고 건설주가 되시어 **김일성**주석께 지어드린 역사의 집이다.

1994년 7월 만국지풍의 대국상이 있은 직후 장군께서는 오랫동안 주석께서 집무를 보시던 금수산의사당에서 수령님을 영원히 생전의 모습대로 모셔야 한다고 하시며 이 집을 태양궁전으로, 이 지구를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릴 구상을 펼치셨다. 그러시고 그 설계와 시공을 몸소 지도하셔 세상에 전무후무한 이 태양의 집, 하늘궁전을 새로 마련해 드리셨다. 국부가 생전에 사용하던 집무실을 서거후에도 계속 쓰도록 하신 일은 고금의 어느 나라에도 동서의 어느 민족에도 없다.

김정일장군의 무한대한 충효심에 의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전설같은 태양궁전이 솟아 **김일성**주석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여전히 집무를 보시는 현대신화가 창조됐다.

장군께서는 선군의 현지시찰을 떠나실 때에도 이 궁전을 찾아 주석께 인사드리고 심장의 대화를 나누셨고 강성대국건설의 구상을 무르익히실 때에도 주석을 찾아 의논하셨다. 이 궁전을 찾아 주석을 만나 뵈오면 답답하던 가슴도 후련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진다고 하시는 장군이시다.

장군의 그 마음따라 만사람들이 이 태양의 집을 찾는다. 그러면 주석께서는 그들을 다 만나주시며 사람이 그리운 사람에게는 사람을, 믿음에 목마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길잃은 사람에게는 길을 밝혀주신다.

주석의 위대한 심장은 만사람의 심장에 박동을 주고 만민의 운명에 숨결을 준다. 주석과 심장의 대화를 나누려 그분의 사상을 배우고 인품을 따르려 나아갈 길을 찾으려 태양의 성지로 향하는 인파는 끝이 없다. 남과 북, 해외의 우리 겨레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찾아오는 행렬은 날과 달을 잇는다. 그래서 주석께서는 바쁘시다. 1년 365일 분망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 나는 그것을 뜻깊은 광복의 나날 역사의 현장에서 분명하게 체험했다.

내가 꿈결에도 그리던 **김일성**주석을 찾아뵈온 것은 지난 2월이었다. 얼마나 이날을 고대해왔던가. 대학시절 이념서클에 참가해 주체사상에 심취되고 주석의 위인상에 매혹된 때로부터 어언 20여년. 어느 하루도 잊은 적 없고 그리움에 잠기지 않은 적 없는 민족의 어버이. 주석을 만나뵙는 것을 유일의 소원으로 삼고 북행길에 오르기를 그 몇번. 하지만 야속하게도 번마다 길이 막혀 이제야 주석을 찾아뵙게 됐으니 안타까웠던 그 진정 어이 다 표현하랴.

수십년세월 산처럼 쌓아온 주석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나는 마침내 태양의 집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들어섰다. 만민이 열창하는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숭엄히 울리는 넓은 홀에 아침노을을 배경으로 서계시는 거룩하신 주석의 입상에 정중히 인사를 드렸다.

층층단단 하늘중천에 올라 주석께서 계시는 방에 안내되었다.

≪오매불망 그리고 그리던 어버이주석님. 서울의 ≪태양회≫회원 김유학이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나는 더이상 입술을 떼지 못했다. 그분앞에 엎어지듯 달려가 꿇어안고 오열을 터뜨렸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흐느낌속에 일어나니 주석께서 나를 안아 일으키시는 듯 싶었다.

나는 우리 ≪태양회≫회원들과 이남 민중 모두의 충정을 담아 주석께 큰절을 올렸다. 가슴 적시는 눈물, 또 눈물. 가까스로 마음 다잡고 주석을 우러르니 아! 이 웬일인가. 주석께서는 우리 ≪태양회≫가 벌인 주체사상보급과 통일운동상황에 관해 드리는 나의 보고를 다 들어주시지 않는가. 그러시고는 장하다고 큰일을 했다고 칭찬하시며 자신께서는 남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때가 제일 기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또 나를 뜨겁게 포옹해주시는듯 싶었다.

아! 어버이 **김일성**주석님! 주석께 있어서 이남의 우리는 아픈 자식이라 할 것이다. 평생 우리들때문에 시름놓지 못하시는 주석님 아니셨던가. 20성상 피어린 항일대전으로 조국을 찾아주셨건만 나라가 허리 끊긴 것이 그리도 가슴 저려 화진포며 철원이며 해주며 38도선 전연에 자주 나오신 주석. 광복의 기쁨도 누려보지 못한채 또다시 미제의 예속민으로 수난당하는 이남민의 참경이 너무도 마음에 걸리시어 광복직후 서울신문사 기자들을 만나시어 마음같아서는 당장 서울로 나가 남조선 동포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당신들이 돌아가면 남조선 인민들에게 나의 열렬한 인사를 전해주기 바란다고, 나의 몸은 비록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남조선 인민들과 함께 있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주석. 생활난으로 고통받는 이남 민중에게 패주하는 일제로부터 노획한 전리품도 보내주셨고 전기도, 관개용수도 보내주신 주석. 6.25전쟁의 나날에는 적기의 맹폭격을 헤치시고 서울에 나오시어 그 바쁘신 속에서도 청계천가의 빈민촌도 돌아보셨고 시민들에게 군량미도 내어주시고 겨울용 솜옷도 해결해 주신 주석. 어찌 그뿐이시랴. 휴전후에도 이남 민중이 재난을 당할 때면 동포사랑 듬뿍어린 구제조치를 취해주셨다. 84년 수재때에는 구제사상 유례없는 막대한 구호물자를 보내주셨거니 주석의 그 하늘같은 은공을 무슨 말로 다하랴. 주석께서 조국통일을 앞당기시려 마음 쓰신 노고는 또 무엇으로 헤아릴거냐.

망국적인 단선단정전야에 잊지 못할 4월 남북연석회의. 김구, 김규식 등 이남의 각계 인사들을 부르시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미제와 사대매국세력에 민족영구분열책동을 분쇄할 방책을 제시하신 주석이셨다. 광복 이듬해에는 몽양 여운형선생을 만나시어 통일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진로를 밝혀주셨고 80년대의 마지막해에는 늦봄 문익환목사를 만나시어 민족자주, 민족단합으로 완료형의 통일을 마중하기 위한 방책도 의논해주시었다.

주석께서 낮에 밤을 이어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시며 제시하신 통일명안과 방침들은 수백권을 헤아린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친필도 통일문건에 남기셨으니 참으로 그분께서 조국통일의 길에 바치신 심혈과 노고를 천으로 헤아리랴. 만으로 헤아리랴.

통일위해 하루도 편한 잠 이루지 못하시고 통일때문에 머리가 일찍 희어지신 주석. 그 무비의 헌신과 노고속에 7.4남북공동성명이 탄생됐고 조국통일3대원칙과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이 제시됐었다.

정녕 주석께서는 통일위해 너무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셨다.

주석께서 이룩하신 성스러운 통일업적을 더듬어 보며 나는 끝없이 젖어드는 마음을 달래이지 못하고 영생하시는 주석을 우러러 뵈었다.

주석께서는 그러는 나를 정겹게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다.

≪**김정일**장군이 진두에 서 있어 통일은 꼭 올거요. 장군이 제시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자는 6.15공동선언은 명안중의 명안이요. 그대로 하면 통일은 문제없소. 나는 남조선 인민들이 장

군을 받들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 굳게 믿소.≫

그 말씀을 심장에 새기며 나는 박용길장로를 비롯한 방북인사들 모두가 주석께서 **김정일**장군은 곧 통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고 하던 이야기를 생각했다. 그 표현을 담아 대학가와 공단에 널리 퍼진 노래 가사가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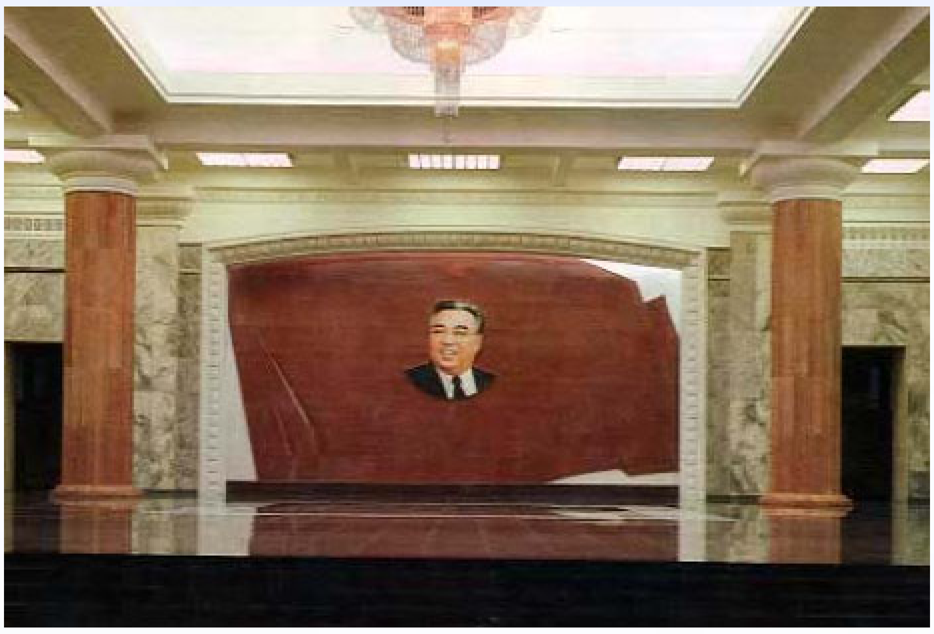
민족의 성지 태양의 집에서
주석님 오늘도 집무보시네
이남의 겨레들을 맞아주시며
장군님 받들어야 통일조국 온다고
뜨겁게 뜨겁게 말씀하시네

그렇다. 우리 이남 민중이 주석의 당부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있다. 나는 주석께 우리 모두의 마음담아 맹세다졌다.

≪주석님, 주석님의 가르치심을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일**장군님 받들어 기어이 통일을 안아오겠습니다. 장군님을 따라나선 이남 민중의 통일대행진은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주석님, 통일은 염려하지 마십시요.≫

푸르른 희망 안고 궁전을 나섰다. 성지의 정원, 대광장에 이르니 주석의 따뜻한 사랑인양 햇빛이 쏟아져 내렸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파는 그 드넓은 광장을 꽉 메웠다. 안내선생의 말에 따르면 1995년 7월 금수산기념궁전이 개관된 이후 2001년 6월까지 주석을 찾아뵈온 방문자수는 무려 475만8500여명, 매년 79만3000여명, 매달 6만6000여명, 하루 2200명씩에 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주석께서는 얼마나 바쁘시랴.

태양의 성지를 제일 자주 찾고 그래서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은 역시 이북민이다. 주석을 가까이 모시고 있기에 그들은 일년 열두달 어느때나 무람없이 주석을 찾아뵙는다 했다. 명절날에도 찾아 인사드리고 보통날에도 찾아뵈옵는다. 저마다 신상의 크고작은 일들을 허물없이 말씀드리고 가르치심 받는다. 어느 탄광의 광부는 석탄을 산같이 캐냈다는 보고를 올렸고 어느 제대군인 부부는 멀리 북변의 농장에 뿌리내려 감자농사 대풍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보고를, 평양산원 의사는 세쌍둥이가 또 태어났다는 보고를 올렸다 한다. 주석께서는 그 모든 보고를 다 들어주시고 기쁜 일, 힘겨웠던 일, 모든 사연 다 헤아려주시며 새로운 큰일도 맡겨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밝혀주신다 한다.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고 긍지높은 민중인가. 주석을 찾아뵙는 행렬속에는 멀리 이역땅에서 온 교포들도 있었다. 그중에는 2월의 명절에 온 재일조선인축하단과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축하단도 있었고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축하단과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축하단도 있었다. 그들은 저마다 주석앞에서 영생기원의 인사를 드리고 주석의 가르치심대로 해외의 자기들도 **김정일**장군을 받들어 통일위해 한몸 다바칠 결의도 새롭게 다지였다고 한다.

지구촌 곳곳에서 온 주체사상 신봉자들과 진보적 인사들, 각국의 외교사절들도 보인다. 주석을 만나뵈온 그들은 말했다. 주석께서는 우리를 반갑게 만나주시고 심장에 자주의 넋, 주체의 진리를 새겨주셨다고, 지혜와 용맹을 주시었다고.

주석께 드린 그들의 아뢰임을 방문록에서도 읽을 수 있었다.

≪**김일성**주석님, 당신은 나의 인생의 매순간의 아버지이시고 귀감이십니다. 당신께서 가리키시는 길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세인의 어느 한 진보인사만의 심장의 토로가 아니다.

정녕 만민의 태양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의 최고성지에서 지금도 진할줄 모르는 정력으로 집무를 보신다. 많은 일을 하시며 크고 고귀한 업적을 쌓고 계신다.

민중행 열차에서

금수산기념궁전에는 **김일성**주석께서 타시던 승용차와 열차가 있다. 달리는 집무실로, 민중행 열차로 불리우는 승용차와 열차. 수수한 열차안의 벽시계는 여전히 내일의 시침을 울리고 있다. 어쩐지 주석께서 그 열차에 오르시어 나라의 방방곡곡, 지구촌 곳곳을 현지지도하시고 금방 돌아오신 것만 같아 가슴 뭉클해졌다. 내가 그런 심정을 품으니 안내 선생도 감동에 젖어 말을 찾았다.

≪그렇습니다. 주석님께서는 오늘도 예처럼 온 나라 인민들을 찾아 쉬임없는 길을 가십니다. 병사들에게도 가시고 공장에도 농어촌에도 가시고. 가셔서는 나라의 형편도 의논하시고 살림살이도 돌보시며 인민들과 숨결을 함께 하십니다.≫

참으로 그렇다. 주석께서는 오늘 **김정일**장군과 함께 민중행열차를 타시고 나라의 크고 작은 정사를 돌보고 계신다. 나는 주석께서 그 어렵고 험난한 선군영도의 길을 장군과 함께 헤치셨다고 생각했다.

7년전 설날아침 **김정일**장군께서는 유명한 다박솔초소를 찾으셨다. 일찌이 **김일성**주석께서 찾으셨던 뜻깊은 곳. 장군께서 이곳에 선군의 첫 자욱을 찍으셨으니 그 뜻을 무엇으로 다 헤아릴 수 있을까. 역사의 그 현장에 있었던 한 군인이 들려준 이야기는 지금도 나의 귀에 쟁쟁하다.

≪그날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걸으셨던 노정을 그대로 밟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전사들의 생활과 훈련정형을 시찰하시고 친어버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김정일**장군님의 모습에서 **김일성**대원수님의 모습을 뵈었습니다.≫

그렇게 주석께서는 전사들에게 오셨다. 장군과 더불어 선군영도의 장거에 오르셨던 것이다.

장군께서는 흰눈까비 내리는 칠칠야밤 야전차로 산세 험한 영길도 수없이 넘으셨고 풍랑 세찬 바닷길과 어둠 깔린 전선길도 마다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차안에서 쪽잠과 줴기밥으로 나날을 보내시며 주석께서 걸으셨던 길을 따라 해와 달들을 이어오셨다. 피곤이 겹겹으로 몰려들어 눈이 충혈되신 장군을 보시는 주석의 마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주석께서는 강철인들 견디겠느냐고, 몸을 좀 돌보라고 간곡한 당부의 말씀도 하셨으리라. 그럴때마다 장군께서는 조용히

≪수령님 힘들지 않습니다. 수령님과 함께 헤치는 길이라고 생각하니 힘이 솟습니다.≫라고 심중의 말씀을 드리셨으리라.

절세위인들, 위대한 동지들 사이에 오가는 뜨거운 말씀. 장군께서 헤치시는 그 길은 주석과 함께 걸으신 길이였거니 거기에 새겨진 사연들은 또 얼마나 가슴 뜨거운 것인가.

31년전 주석께서 근무중인 한 전사를 만나시어 그가 휴대한 총과 장비들을 친히 보아주시고 고향은 어디인가, 부모는 계시는가 다정히 물어주시며 그와 더불어 사진도 남기셨다는 뜨거운 사연 깃든 역사의 철령, 바로 그 철령에서 장군께서는 주석의 모습 그대로 한 전사를 부르시어 군무생활과 고향, 부모와 나이, 건강 등에 대해 자상히 물으시고 잊지 못할 기념사진도 찍어주셨다. 연대는 비록 다르지만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남기신 두폭의 사진, 그때의 광경을 기록한 영화처럼 말이다. 과연 어느 누가 주석과 장군께서 따로 오셨다하랴. 분명히 장군께서는 주석과 함께 오신 것이었다.

감에 대한 이야기는 또 얼마나 가슴 뜨거운 것이랴. 25년전 한 단발머리 여대원이 주석께 꽃다발을 드렸던 바로 그 초소에 오늘은 그의 딸이 서있다는 소식 들으시고 너무도 대견하시어 어디보자 불러주신 장군. 어머니 대신 어떤 감나무의 주렁진 감을 따들고 달려온 딸. 그 여대원을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는 불멸의 화폭도 남기셨다.

장군께서는 주석께서 이렇게 함께 군인들을 찾으시어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키우신다. 전선길 뿐이랴. 선군영도의 자욱자욱은 공장과 농촌에도 꽃피워주셨다. 장군께서는 산넘고 영넘어 바람 세찬 북변땅도 다지셨고 허리띠를 졸라맨 용해땅도 찾으셨다. 휴전후 그 어려웠던 시기 강선을 찾으시어 천리마 대진군의 봉우리 지펴올리셨던 주석의 모습 그대로 장군께서는 민중의 심장에 봉화를 지피셨다. 그 길에서 만경대 혁명일가분들의 자취가 역력히 어려있고 그래서 자력갱생의 정신, 결사관철의 정신이 어디보다 높은 자강도 민중을 이끄셔 고난의 행군정신, 강계정신을 창조하였다. 그렇게 장군께서 민중행열차로 가고 가셨다. 강계정신의 기치 드높이 주석께서 걸으셨던 길을 따라 성강으로, 낙원으로 준마를 채찍질하며 제2의 천리마대진군의 불바람을 일으키셨다.

장군의 손길따라, 주석의 의지따라 이북의 이르는 곳마다에 중소형발전소들과 현대적인 메기공장, 양어장, 닭공장들이 연이어 일떠섰다. 수만정보의 논밭이 넉달사이의 규격포전으로 바뀌고 최첨단 과학기술로 세기를 놀래우는 기적도 이루어냈다. 인공위성 ≪광명성1호≫의 발사로 서방을 기절초풍케하며 이북은 세계앞에 강성대국건설의 장엄한 포성을 터쳤다.

백두고원 대흥단에서 터져오른 감자농사혁명의 포성은 또 얼마나 경이적인 것인가. 주석께서 제대군인들을 보내시어 일으켜 세운 대흥단 국영농장, 오늘은 장군께서 제대군인들을 보내시어 감자농사혁명의 본보기단위, 강성부흥의 이상촌으로 꽃피워주셨다. 주석의 뜻과 위업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장군의 모습은 필사 주석 그대로이시다.

주석과 장군께서 타신 민중행열차는 선군의 깃발을 펄펄 휘날리며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고립압살공세 짓뭉개버리고 사회주의를 수호했다. 부강번영의 도약대를 마련했다. 그래서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하늘끝에 올려세웠다. 주석께서는 얼마나 기쁘시랴. 장군께서 자신의 소원을 다 풀어주신다고, 자신께서는 정말 후계자복이 있다고 뜨겁게 하시는 말씀이 귓전에 들려오는듯 싶다. (내일 계속)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께서 생전에 타시던 승용차

≪태양회≫회원 김유학 - 구국의 소리
주체91, 4월 11일~12일

거짓을 밝혀내는 6.15공동선언

통일연대, 6차 범국민행동의 날 열려

≪6.15 공동선언은 과거의 모든 거짓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15일 낮 12시 탑골공원에서 열린 ≪통일연대 6차 범국민행동의 날≫에서 김규철 서울 통일연대 상임대표는 6.15공동선언의 성과를 이렇게 강조했다.

김규철 상임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민주당 경선에서 보듯이 더 이상 색깔론에 국민들은 놀아나지 않는다≫며 ≪6.15공동선언은 지금까지 거짓에 속아왔던 우리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주고 있다≫고 6.15공동선언 이후의 국민의 의식변화를 설명했다.

김규철 상임대표는 또, ≪10년전 지금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부시가 방문할 때 우리 국민들의 반대는 8%였지만, 아들 부시가 방문할 때는 83%가 반대했다≫며 ≪6.15공동선언으로 우리 국민들의 반미의식이 놀라울 정도로 성장한 것을 보여준다≫고 공동선언의 성과를 덧붙였다.

대회사에 이어 통일연대 김강현 대외협력국장이 지난 10-12일에 금강산에서 있었던 남북민간급 실무접촉 결과에 대해 보고하며 ≪올해 통일운동은 여성, 청년, 환경 등 부문행사를 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차원의 대화도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전망했다.

다음으로 이천재 서울연합 상임의장은 ≪6.15공동선언 위협하는 미국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정치연설을 통해 ≪일본에게 2차대전의 항복을 받으러 이땅에 들어온 미군이 아직 나가지 않고 있는 한반도는 아직 2차대전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50여년 간의 주한미군의 주둔을 비판했다.

이천재 상임의장은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는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남북사이의 자유로운 교류, 협력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천재 상임의장은 ≪지금 이 정권이 공기업을 헐값에 외국에 매각하여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은 평화를 팔아먹는 행위이며 미국의 무기를 사들이는 것은 냉전을 팔아먹는 범죄행위≫라 규정하고 ≪이러한 범죄행위가 진행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권력자들이 분단체제를 통해 모든 양심세력들을 탄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천재 상임의장은 ≪우리가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어서 식민지가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역사상 외국군대를 불러들이는 나라치고 식민지 아닌 나라 없었다≫며 ≪우리민족끼리 단합하여 통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며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연설을 마쳤다.

한편, 이날 범국민행동의 날은 집회 참가자가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이천재 상임의장의 정치연설 동안에 탑골공원 주위의 나이 많은 할아버지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집회 대열에 동참해 주목을 끌기도 했다.

통일연대 범국민행동의 날은 이번이 6번째로 6.15공동선언을 이행하자는 취지에서 매달 15일 탑골공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4/15

국민인권 유린할 테러방지법, 가라!

시민사회단체, 테러방지법 저지 단식농성 돌입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이 문제가 이슈화 될 전망이다.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공동투쟁)은 15일 오후 국회앞에서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며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또 전국민중연대(민중연대)도 낮 12시 같은 장소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투쟁을 결의했다.

공동투쟁은 테러방지법이 국민인권 유린으로 인해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에서는 공공의 여론을 수렴해야 할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에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동투쟁이 벌이는 국회 앞 릴레이 단식농성은 1차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1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한다.

단식농성 첫날인 15은 박유순(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과 이광렬(인권실천시민연대) 팀장이 결합하고 16일은 신수경(새사회연대) 정책위원 등 공동투쟁 소속 단체회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공동투쟁의 단식농성 돌입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민중연대 주최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박석운(민중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는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의 여는말로 시작됐다.

오종렬 상임의장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된다면 우리는 거대한 감옥에 갇히게 된다≫며 ≪인권과 민주주의, 생존의 목소리, 그리고 인간세상을 살리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막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수호(전교조) 위원장도 규탄연설에 나서 테러방지법은 ≪칼날이 비수가 되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한다≫며 ≪모든 민중들과 함께 정권과 보수층의 음모를 확실하게 저지할 때까지 열심히 투쟁하자≫고 참가자들을 독려했다.

또,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그간의 민주화 과정을 통해 얻은 작은 성과마저도 앗아가려 한다≫며 국정원과 민주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규탄연설을 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테러방지법 화형식을 가져 시민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민가협 김순심씨의 결의문 낭독으로 마무리 됐다.

박유순 대외협력국장에 의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가진 결의대회와 단식농성 외에도 18일 영등포역에서 단식농성 보고대회를 겸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또 1차 단식농성을 통해 추이를 지켜보면서 장기적인 투쟁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뉴스 2002/04/15

수원시민 자존심으로 미군기지 막자

용산미군기지 수원이전 결사반대 공동대책위 출범

≪용산미군기지 수원이전 결사반대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공식 출범했다.

다산인권센터와 민주노동당 권선지구당, 수원여성회, 경기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수원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시민들은 13일 수원 팔달산 입구에서 출범식을 갖고 용산미군기지의 수원을 포함한 수도권 이전을 막아내고,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적극 전개하자고 결의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공대위의 이성윤 공동집행위원장은 ≪주한미군이 가는 곳마다 환경 파괴 등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제 용산미군기지의 이전이 아니라 반환을 위해 시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내자≫고 말했다.

공대위의 김영기 상임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한반도에는 6·15공동선언 이후 화해와 자주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며 ≪이러한 때에 없어져도 시원찮을 용산미군기지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영기 대표는 또 ≪우리는 100만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효화문화의 도시에 사는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시민의 힘으로 기지이전을 막아내자≫고 열변을 토했다.

이어 매향리미군국제폭격장폐쇄범국민대책위원회의 김종일 집행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주권을 유린하며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미군들 때문에 엄청난 세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2002년에만 4억9천만 달러(우리돈 약 6200억 원)가 미군 주둔에 지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우리정부는 미군의 요청이 있으면 무료로 땅을 내어주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일≫이라며 ≪용산미군기지의 구체적인 철군 계획이 발혀지고 실행될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출범식 참가자들은 공대위의 김진춘 공동대표(매원감리교회 목사)가 낭독한 출범선언문을 통해 ≪수원지역의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은 용산미군기지의 수원을 포함한 수도권 이전에 대한 반대와 미국의 부당한 패권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공대위를 구성하였다≫며 선언했다.

앞으로 공대위는 용사기지 이전반대를 비롯해,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한미양국이 부당하게 체결한 연합토지관리계획을 전면 반대하는 실천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대위는 F-15전투기를 강매하고,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강요하는 부시정권의 패권정책을 반대하는 사업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 참가자들은 시민들에게 ≪용산미군기지 이전반대≫란 글이 적힌 풍선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수원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미군기지 이전을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팔달산 아래서 출범식을 지켜 본 한 할아버지는 ≪사실 미군이 예전부터 나쁜 짓을 정말 많이 했다≫며 ≪세상이 좋아져 미국놈들 나가란 얘길할 수 있게 된 건 참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유뉴스 2002/04/14

식을 줄 모르는 ≪미국제품 불매운동≫

≪반미운동본부≫소속 네티즌, 신촌서 2차 불매운동

3월 명동집회에 이어 두 번째로 거리시위를 가진 반미운동본부 소속 네티즌들은 13일(토) 신촌일대에서 미국제품 불매운동을 선전했다.

거리홍보와 ≪불매운동≫ 관련한 퍼포먼스를 진행한 이날 집회에는 약 50여명의 소속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대한민국네티즌연합측이 연대단체로 참가하기도 했다. 네티즌 단체의 온·오프라인 시위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힌 안효준(반미운동본부 서울대표, 직장인)씨는 ≪최근 문화방송의 한 프로그램에서 네티즌들에 관한 내용을 담았는데 이 운동을 폄하하고 왜곡되게 보도해 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며 거리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문화방송은 자사프로그램인 ≪생방송 화제집중≫ 3월 11일자로 네티즌들의 불매운동을 소재로 한 ≪우리도 할말 있어요≫편을 방영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측에서는 ≪불매운동활동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도하는 등 왜곡편파보도를 했다≫고 게시판을 통해 항의하고 있으며 문화방송 측의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백영순기자
유뉴스 2002/04/15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열 가지 논제 (1)

서론
▶ 1.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 2.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와 그 역할
3.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역량편성
4. 조국통일운동의 주체와 그 역할
5. ≪두 개의 전선론≫에 대한 보완 · 수정
6. 민족해방혁명의 관점에서 고찰한 미군철거의 의의
7. 선군혁명전략의 당면목표와 6.15 공동선언의 지향
8.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서의 자주적 민주정권의 지위와 임무
9. 지역통일전선의 형성과 진보적 대중정당의 건설
10. 올해의 선거정국과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대응
결론

서론

사회를 개조·변혁하는 혁명운동을 추동하는 원동력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입니다. 자주적인 사상의식에 의하여 추동되는 혁명운동은 혁명과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해명하는 필수적 공정을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혁명적 실천과정에서 이론의 발전을 이룩하지 못하면 혁명운동의 전진은 불가능합니다.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이론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학술논쟁을 전개하는 문제가 아니며 혁명과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명하는 혁명투쟁의 중요한 과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필자는 지난해에 두 편의 논문을 집필하면서 통일운동과 혁명운동 앞에 제기된 몇 가지 이론·실천적 문제들을 해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두 편의 논문이 발표되자 필자의 견해에 대해서 몇몇 동지들의 비판과 지적이 있었으며, 논쟁도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각된 주요쟁점들을 분석·검토하면서 필자는 필자의 두 논문에 들어있는 모호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오류를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노력은 **김일성**주의 혁명사상과 혁명이론,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선군혁명사상을 더 깊이 학습하고 연구하는 것으로 진척되었습니다.

김일성주의 혁명사상과 혁명이론, 그리고 선군혁명사상을 학습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필자의 두 논문에 존재하는 모호성과 오류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필자는 **김일성**주의 혁명사상과 혁명이론, 선군혁명사상에 의거하여 필자의 두 논문에서 드러난 모호성과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자신과의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그 투쟁의 성과물로 남겨져 오늘 동지들 앞에 삼가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김일성**주의 혁명사상과 혁명이론, 선군혁명사상에 관해서는 깊이 있게 서술하지 못합니다. 그 중요한 과업은 다음 기회를 빌어서 진척시키려고 합니다.

1. 통일운동과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

현 시기 우리 민족이 완수해야 할 가장 중대한 사명은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고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것입니다.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는 사명은 통일운동으로 완수해야 하며,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사명은 혁명운동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통일과 혁명,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이 보다 더 절실한 과업은 존재할 수 없으며, 그 위업을 실현하는 임무 보다 더 중대한 임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통일위업과 혁명위업은 최상의 위업으로, 최고의 사명으로, 최대의 임무로 됩니다.

이 시대에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는 통일과 혁명의 양대 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입니다. 우리 민족민주운동이 추구하는 목적도 그 양대 위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통일운동의 성격과 임무는 무엇이며, 현 단계 혁명운동의 성격과 임무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논하겠습니다.

조국통일운동의 임무는 미제에 의해서 분열된 민족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미제에 의해서 분단된 조국을 통일하여 연방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임무에 의해서 통일운동의 성격이 규정됩니다. 통일운동의 성격은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불문하고 하나의 민족으로 화해와 일치, 단합과 단결을 이룩하여 분단체제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민족대단결의 강령에 따라 화해·일치하고 단합·단결한 기초 위에서 남과 북의 정권을 통일적인 정권으로 연합하면, 그것이 바로 연방통일국가를 건설하는 주체인 중앙연방정권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 단계 조선혁명의 임무는 우리 나라 영토를 분할하고 그 일부를 무력으로 강점하고 있는 미제를 격퇴하고 신식민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고 신식민체제를 청산함으로써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임무에 의하여 현 단계 조선혁명의 성격이 규정됩니다. 현 단계 조선혁명의 성격은 미제의 신식민체제를 타도하는 민족해방혁명의 성격과 자주적 민주정권에 의해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민주주의혁명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 단계 조선혁명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 됩니다.

물론 현 단계 조선혁명이라는 개념에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만이 아니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도 포함됩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은 낡은 사회체제를 새로운 사회체제로 교체하는 혁명이 아니라 현존하는 사회주의체제를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혁명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체제를 근본적으로 교체한다는 의미에서의 현 단계 조선혁명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밖에 없습니다.

현 단계 조선혁명은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지배와 착취를 폐절하고 프롤레타리아독재정권을 수립하는 사회주의혁명이 아니라, 우리 나라 영토를 분할하고 그 일부를 신식민지로 강점하고 있는 조선민족의 최대의 원흉 미제를 격퇴하고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입니다.

조선민족의 최대 원흉인 미제는 우리 나라 영토를 강제로 분할하고 그 일부를 신식민지로 점령하고 있습니다. 미제가 우리 나라 영토를 분할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는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로 나누어졌습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견지에서 보면, 우리 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혁명기지라는 개념은, 혁명의 수령,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 혁명무력, 혁명적 인민이 존재하고 있는 근거지를 의미합니다. 신식민지라는 개념은 제국주의자들이 총독부 대신에 식민정권을 내세워 억압·착취하는 새로운 유형의 식민지라는 의미입니다. 구식민체제에서는 식민지에 식민정권을 조작·설치하지 않고 총독부를 설치하여 제국주의자들이 식민지의 인민대중을 직접적으로 억압·착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구≫라는 개념은 미제의 통치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며, 식민지적 성격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제는 무력으로 점령한 신식민지에 신식민체제를 수립하고 신식민정권을 조작해놓았습니다. 신식민정권과 신식민체제는 모두 미제가 자기의 신식민지에 조작해놓고 장악하고 있지만, 그 성격과 임무는 구분됩니다. 신식민정권은 미제의 요구와 이익에 따라 신식민지의 인민대중을 억압·착취하는 반동적인 통치집단입니다. 신식민체제는 미제가 신식민정권을 지배·약탈하기 위하여 조작해놓은 반혁명적 체제임은 물론, 혁명의 근거지까지 말살하려는 미제의 전략에 따라 설치된 침략거점입니다.

미제는 신식민체제의 지배관할권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 체제의 관리권은 자기의 하수인인 민족반역세력에게 이양하였습니다. 신식민체제의 관리권은 신식민정권의 군대와 경찰, 기타 정권기관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으며, 신식민체제의 지배관할권은 미제의 점령군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미제는 신식민체제의 관리자를 때에 따라 새로운 관리자로 교체하지만, 신식민체제는 다른 그 어떤 체제로 교체하지 않습니다. 미제가 신식민체제의 지배관할권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그 체제의 관리자를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미제는 자기에게 충성하는 하수인을 신식민체제의 관리자로 등장시키는데, 만일 그 하수인이 이용가치를 상실했을 때는 즉각 다른 하수인으로 교체합니다. 이때 미제는 군사정변, 대통령선거 따위의 교체수법을 동원합니다.

민족해방혁명은 미제의 신식민체제를 타도하는 혁명입니다. 그 혁명은 신식민지에 대한 지배관할권을 행사하는 반혁명체제인 신식민체제를 타도하는 혁명입니다. 또한 그 혁명은 혁명기지를 말살하려는 침략기지인 신식민체제를 타도하는 혁명입니다. 따라서 민족해방혁명은 신식민지와 혁명기지를 포괄하는 전국적 범위의 혁명으로 됩니다.

민주주의혁명은 미제의 하수인인 민족반역세력이 관리하고 있는 신식민정권을 타도하는 혁명입니다. 그 혁명은 신식민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고, 그 새로운 정권에 의하여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혁명

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혁명은 신식민지의 지역적 범위에서 수행되는 혁명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전국적 범위의 혁명과 지역적 범위의 혁명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수행하는 혁명입니다. 두 개의 혁명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수행하는 혁명이므로, 혁명의 임무가 방대하게 되고, 혁명의 경로가 간고・복잡하게 되며, 혁명의 수행기간이 장기화됩니다.

여기서 고찰해야 할 것은, 민족해방혁명과 민주주의혁명이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하나의 혁명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민족해방혁명과 민주주의혁명을 하나의 혁명으로 통일시키는 것은 혁명을 수행하는 주체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민족해방혁명과 민주주의혁명은 혁명의 주체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으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의 혁명주체가 두 개의 혁명을 통일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혁명의 주체가 전국적 범위의 민족해방혁명과 지역적 범위의 민주주의혁명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하나의 통일적 혁명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논하는 데서 ≪지역혁명론≫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지역혁명론≫은 혁명의 성격과 임무, 동력과 대상을 전국적 범위냐 아니면 지역적 범위냐 하는 것에 따라서 구분하는 이론체계를 말합니다. 지역적 범위에 국한된 혁명을 지역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지역혁명론≫에서는 전국적 범위의 혁명과 지역적 범위의 혁명이 유기적으로 통일될 수 없게 됩니다. ≪지역혁명론≫에서는 지역적 범위에 국한된 두 개의 지역혁명이 상호지원하면서 수행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필자는 지난해에 발표한 논문 ≪현 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에서 현 시기 조선혁명을 두 개의 지역적 범위의 혁명과 하나의 전국적 범위의 혁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두 개의 지역적 범위의 혁명은 남측의 지역혁명인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과 북측의 지역혁명인 사회주의혁명으로, 하나의 전국적 범위의 혁명은 민족해방혁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적 범위의 민족해방혁명은 두 지역혁명의 당면임무를 규정하고 그 발전과정을 선도하는 상위의 혁명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그 동안 **김일성**주의 혁명사상과 혁명이론,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선군혁명사상을 더 깊이 학습하고 연구한 결과, 그러한 구분이 이론적 착오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은 혁명기지에서 수행되고 있는 지역혁명(지역적 범위의 혁명)이지만,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지역혁명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은 전국적 범위의 혁명과 지역적 범위의 혁명을 유기적으로 통일시켜 수행하고 있는 혁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혁명기지에서는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남조선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남조선혁명이라는 개념은 남조선이라는 지역적 범위에 국한된 지역혁명(남조선 지역혁명)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혁명기지의 반제혁명역량이 신식민지인 남조선을 해방하는 혁명(남조선 해방혁명)이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주체와 그 역할

모든 혁명은 인민대중 자신의 위업이며, 모든 혁명의 주체는 인민대중 자신입니다. 그렇지만 자연상태에 있는 인민대중은 혁명의 위업을 자신의 위업으로 자각하지 못하며 아직 혁명의 주체로 될 수 없습니다.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영도에 의하여 혁명의 주체로 됩니다.

인민대중이 당과 수령의 영도에 의하여 사상적으로 각성되고 조직적으로 단결될 때,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가 성립됩니다. 혁명의 주체는 사상의식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조직체계적으로 단결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입니다. **김일성**주의에서는 이 통일체를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혁명의 주체라는 개념과 구분하여 혁명의 자주적 주체라고 부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자주적 주체도 역시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입니다. 이러한 혁명의 대원칙에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는 혁명기지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혁명기지의 인민대중은 당과 수령의 영도에 의하여 사상의식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조직체계적으로 단결된 혁명의 자주적 주체의 일원입니다. 그렇지만 신식민지의 인민대중은 혁명의 자주적 주체의 일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노동계급의 수령은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을 통하여 혁명기지의 인민대중과 신식민지의 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강령 아래, 하나의 혁명영도체계로 연대・집결시킴으로써 전국적 통일전선을 형성합니다. 신식민지의 인민대중은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에 의하여 그 통일체와 통일전선으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 노동계급의 수령의 혁명사상과 혁명전략에 의하여 수행되는 혁명이며,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이 영도하는 혁명이므로, 그 혁명에 참여하는 인민대중은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를 불문하고 모두 혁명의 주체로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일전선의 일원인 신식민지의 인민대중을 혁명의 자주적 주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민대중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주체로 참여한다는 말은, 인민대중이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통일전선에 연대・집결한다는 의미입니다. 인민대중은 자연상태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참여할 수 없으며, 반드시 통일전선을 통해서만이 그 혁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민대중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에 복무하는 통일전선에 연대・집결함으로써 당과 수령의 영도에 의하여 각성되고 단결된 혁명의 주체로서 자기의 위대한 자태를 역사의 현장에 드러냅니다.

먼저 민족해방혁명의 주체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민족해방혁명은 우리 나라 영토를 분할하고 그 일부를 신식민지로 강점한 뒤에 혁명기지까지 침략하려는 미제의 신식민체제를 타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혁명이므로, 민족해방혁명의 주체는 신식민지에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를 모두 포함하는 전국적 범위에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민주주의혁명의 주체에 대하여 논하겠습니다. 신식민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는 민주주의혁명이 신식민지의 지역적 범위에서 수행되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혁명이 신식민지에서 수행되는 혁명이라고 해서 그 혁명을 수행하는 주체가 신식민지에 한정된 주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혁명의 주체는 신식민지에 존재하느냐 혁명기지에 존재하느냐 하는 지역구분을 초월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존재합니다.

조선혁명의 주체는 미제를 격퇴하고 신식민체제를 타도하는 민족해방혁명을 수행할 뿐 아니라, 신식민정권을 자주적 민주정권으로 교체하는 민주주의혁명도 수행합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주체는 전국적 범위에서 하나로 통일된 주체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가 전국적 범위에서 하나로 통일된 주체라는 사실과 더불어 지적해야 할 것은, 그 주체가 자기의 역할을 분담한다는 사실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주체가 자기의 역할을 분담한다는 말은, 그 역할을 전국적 범위와 지역적 범위로 분담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남과 북이라는 두 지역별로 분담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주체의 역할분담이란, 노동계급의 수령을 중심으로 단결한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이 담당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받는 통일전선이 담당하는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를 주도적 역할이라고 부르고, 후자를 방조적 역할이라고 부릅니다.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주체는 전국적 범위에서 하나의 통일체로 존재하지만, 그 혁명을 수행하는 주체의 역할은 주도와 방조로 분담됩니다. 주체가 분리될 수 없으므로, 그 역할도 분담되기는 하나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혁명의 주체는 하나의 통일체로 존재하는데, 그 주체의 역할이 분담되어야 하는 이유는 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지위의 상이성과 혁명을 수행하는 역량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수령을 중심으로 단결한 혁명적 당은, 혁명을 영도하는 지위에 있을 뿐 아니라 혁명무력을 동원하는 것으로 하여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수행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적 당은 영도적 지위와 최강의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당과 수령의 영도를 받는 지위에 있는 통일전선은 방조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의 역량을 주도역량이라고 할 수 있고, 방조적인 역할을 하는 주체의 역량을 방조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지난번에 발표한 논문 ≪현 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에서는 북측의 혁명역량을 주도역량으로, 남측의 혁명역량을 방조역량으로 이해하였지만, 그것은 정확한 이해가 아니므로 수정합니다.

주도역량과 방조역량은 남측과 북측의 지역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지위의 상이성과 역량의 차이에 의해서 규정되는 역할분담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아야 더 정확합니다.

3.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의 역량편성

지금 조선반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주체역량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하겠습니다. 그 혁명의 주체는 지위가 서로 다른 것으로 하여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데, 그 역할분담에 의하여 주도역량과 방조역량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습니다. 주도역량은 조선노동당의 반제혁명역량이며, 방조역량은 혁명기지와 신식민지를 망라하는 전국적 범위의 각계각층 인민대중이 연대・집결한 통일전선의 자주적 민주역량입니다.

반제혁명역량이란 노동계급의 수령을 중심으로 강철같이 단결한 영도핵심역량을 의미하며, 자주적 민주역량은 통일전선으로 연대・결집한 자주애국적이며 민주개혁적인 역량을 의미합니다.

조국통일운동의 견지에서 역량편성문제를 살펴보면, 주도역량은 조국통일 3대 헌장의 기치에 따라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조선노동당의 조국통일역량이며, 방조역량은 6.15 공동선언의 기치에 따라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각계각층 인민대중이 연대・집결한 통일전선의 통일애국역량입니다.

(내일 계속)